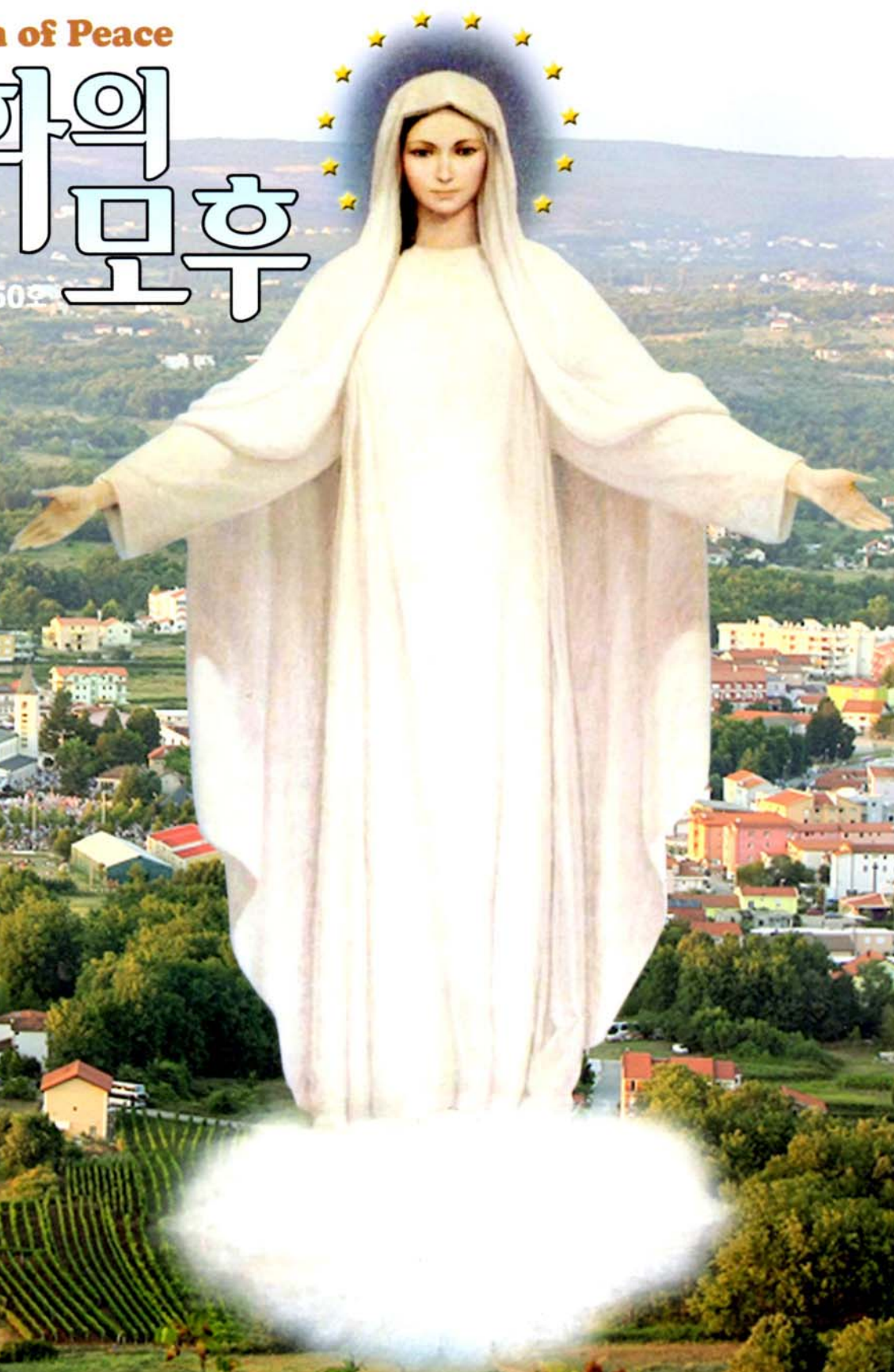


The Queen of Peace

평화의 모후

June, 2009 제50호



Queen of Peace Missionaries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시기에 세례 받은 모든 피조물 위에 성령께서 임하시도록
기도하라고 너희 모두를 부른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너희 모두를 새롭게 하시고, 하느님과 그분의
사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이들에게 너희의 믿음을
증거하도록 너희를 이끌어주실 것이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있고, 지극히 높으신 분 대전에서
너희를 위해 전구하고 있다.
나의 부름에 응답해 주어서 고맙다."

2009년 5월 25일 성모님의 메시지

사제의 해

- 인류복음화성의 편지 -

사랑하는 형제 주교 여러분

교황 베네딕토 16세 성하께서는 아르스의 본당 신부 요한 마리아 비안네 성인의 선종 150주년을 맞이하여 사제의 해를 거행하기로 하시고 2009년 6월 19일에 사제의 해를 장엄하게 개막하실 것입니다. 교황 성하께서는 "교회와 현대 사회에서 사제의 임무와 사명을 더 분명하게 인식하도록" 이 사제의 해를 거행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제의 해는 요한 마리아 비안네 성인의 선종 150주년과 관련됩니다. 비안네 성인은 인간적 덕목과 그리스도인의 덕목 그리고 사제의 덕목에서 뛰어난 분이셨고 진실로 하느님의 사람이며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모든 사제들에게 영감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교황 성하께서는 비안네 성인이 "그리스도의 양떼를 돌보는 목자의 참된 모범"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안네 성인은 특히 세속적인 것에 대한 초연, 모욕을 받아들이는 깊은 겸손, 특별한 고행과 속죄의 정신, 시련과 악마의 유혹에 맞서는 용기, 정결, 하느님과의 일치, 성체에 대한 사랑, 고해소와 강론대에서 밤낮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돌보는 끊임없는 열정과 지칠 줄 모르는 봉사, 병자들과 가난한 이들, 죄인들과 같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모든 이들에 대한 연민, 사람들을 하느님께 이끄는 놀라운 능력으로 칭송을 받습니다. 교회는 비안네 성인을 사목에 종사하는 사제들의 천상 수호자로 정하였습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드릴 것을 약속하며, 건안을 빕니다.

성모 성심 안에서

2009년 5월 2일

인류복음화성 장관 이반 디아스 추기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께 드리는 기도

- 성모님의 특별한 지향의 구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성모님, 박 창득 몬시뇰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보살펴 주세요.
 - 모든 사제와 수도자들의 성모님께 대한 신심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 선교회의 어머니 마을과 후원회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제 믿음이 일상에서 가족과 이웃에게 사랑으로 실천하게 이끌어 주소서.
 - 다친 머리부위의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 예수님, 남편의 회개하는 삶과 정결된 삶을 위하여 기도해주세요.
 - 성모님께 감사드리오며 온 세상의 모든 어머니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 첫 영성체를 한 모든 분들의 믿음을 위하여 미사 봉헌합니다.
 - 성모님, 성체를 다시 받아 모실 수 있는 은총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 박마리아언순 어머니와 조상님들 영혼의 평안과 안식을 위하여 기도해주세요.
 - 성모님, 이토마스가 주님의 사랑의 도구로 잘 쓰일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성모님, 신베드로, 세실리아의 영육간의 건강을 보살펴주세요.
 - 성모님, 신 요한의 사업, 가족들의 영육간을 봉헌하오니 돌보아 주세요.
 - 4살 된 우리 000가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죄인들의 회개와 낙태된 아기들의 영혼을 위하여 두 손모아 기도합니다.
 - 불신과 미움과 절망중에 있는 이웃들이 희망을 갖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성모님, 사랑하는 사위가 알콜중독자라는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치유해주세요.
 - 큰오빠의 알콜치료를 위해 기도하오니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 성모님, 가족들의 잘못을 용서해주시고 새롭게 시작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 예수님과 성모님께 경 데레사, 홍바오로, 치유를 봉헌하오니 늘 보살펴주소서.
 - 000가 몸과 마음을 다치지 않고 평화속에 살도록 빌어 주소서.
 - 제 주변의 인간관계를 보살펴주시고 저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 이모, 동생 가정이 하느님께로 향하고, 아이가 평화를 찾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 성모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 큰아들 사업이 경제 불황을 이겨낼 수 있게 해 주시고 막내아들에게 생활기반이 마련되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 자녀들의 성소를 위하여, 진 프란체스카 전가족, 박은정, 김춘애 전가족 지향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 진 도미니까의 치유와 진양훈, 진정훈, 진상훈, 진해경 루드비고 전가족을 봉헌합니다.
 - 박 요셉, 박 모이세 두 가정을 악으로부터 보호하시어 위로 하시고 평화를 누리게 하소서
 -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 안에서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 주님, 나의 모든 시험과 무거운 짐을 위해 기도하오니 기도로써 물리칠 성령의 힘을 내려 주옵소서
 - 집을 나간 남편과 19세, 21세의 두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보살펴주소서.
 - 부활때 세례를 받는 송유진세실리아를 성모님께 봉헌하오니 축복해 주세요
 - 저희 아들 000을 항상 돌봐주시고 주님의 은총안에서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기도드립니다.
 - 부활때 영세받은 000와 하느님의 새로운 자녀로 태어나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주님, 젊은이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 가도록 보살펴주소서.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 아버지에게 주님의 자비를 청하고, 오빠가 가장으로써 맑은 정신과 지혜로 살아 갈 수 있기를 청합니다.
 - 첫 영성체를 한 모든 어린 영혼들을 지켜주시어 주님의 성체를 모독하는 일이 없이 지켜 주시고 전구해 주세요.
 - 성모님, 언제나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잘 알아 들을 수 있도록 눈과 귀를 열어주소서
-
- 성모님의 매일 발현을 보는 목격자 비스카에게 기도지향들을 전달하여 성모님의 축복을 청했습니다.
 - 평화의 모후 선교회의 신부님께서 지면상 이곳에 올리지 못한 모든 기도 지향들도 함께 미사를 봉헌해 주셨습니다.
 - 선교회에 보내주시는 모든 기도 지향들을 위하여 매일 첫 토요일 성모 심신 봉헌 및 성시간에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 7월 메주고리에 순례 때에 모든 기도지향들을 위하여 미사를 봉헌하겠습니다.

'평화의 모후로 제호를 바꾸면서'



지도신부: 박창득 어거스틴 몬시뇰
신경남 스테파노

발행 및 편집인: 남홍익 그레고리오 회장

2001년 1월 첫 호를 발행한 성모님의 소식지 『메주고리에』가 2009년 6월을 맞이하여 제50호를 발행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평화의 모후이신 성모님께서 소식지를 통하여 당신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고,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회개와 은총을 체험하도록 하셨습니다. 감사할 따름입니다. 현재 저희 평화의 모후 선교회에서 격월로 발행하고 있는 『메주고리에』는 미국 전 지역과 한국, 캐나다, 그리고 러시아를 포함한 유럽의 6개국과 호주, 중국, 멕시코, 페루, 브라질, 등 세계 전역으로 약 2만부 가량 무료로 배포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부수가 발행, 배포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봉사자들과 후원자들 그리고 독자 여러분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소식지가 발행되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성모님의 메시지를 접하고 예수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제 50호 소식지를 받고 표지를 보시면서 혹시 그 동안 받아

보던 『메주고리에』가 아닌 다른 잡지를 받은 것이 아닌가 의아하셨을 것입니다. 소식지 이름이 왜 바뀌었을까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는 오랜 숙고를 거듭한 끝에 이번 호부터 소식지의 명을 『메주고리에』에서 『평화의 모후』로 변경하기로 결정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저희가 8년 동안 발행되어 오던 소식지의 명을 바꾸게 된 이유는 크게 보아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이제는 우리가 메주고리이라는 지역성을 초월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1981년 6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작은 마을 메주고리에에서 발현을 시작하여 당신을 평화의 모후라고 소개하신 성모님께서는 메주고리에처럼 온 세상 사람들이 기도, 회개, 신앙, 보속 그리고 평화의 메시지를 실천하는 삶으로써 이 지상 전체가 거대한 메주고리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즉, 이제

는 메주고리에가 하나의 지역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영적 운동으로서 그 정신과 영성은 메주고리에라는 지역을 넘어서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평화의 모후 선교회도 이러한 움직임에 동참하기 위해 지역성을 강조하는 「메주고리에」보다는 그 모든 것을 지휘하시는 성모님 「평화의 모후」로 저희 소식지명을 변경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여 성모님의 발현 28주년이 되는 이번 호를 기해 그 이름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둘째로, 저희가 소식지명을 바꾸게 된 이유는 메주고리에 성모님 발현과 메시지가 19세기 이후 지금까지의 수많은 성모님 발현과 메시지들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식지의 명을 「메주고리에」라고 부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평화의 모후께서는 1991년 8월 25일 메시지를 통해서 20세기 초 당신의 결정적인 발현이었던 파티마의 비밀을 언급하시면서 그 모든 일을 메주고리에 발현을 통해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메주고리에에서의 성모님 발현을 중심으로 하여 이를 프리즘으로 삼아 과거의 모든 발현들을 통한 메시지들을 재조명하고 깊이 성찰하여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모든 시대적인 중요성을 숙고하여 '평화의 모후'로 오신 메주고리에 성모님을 저희 소식지의 명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위에 언급한것 처럼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발현의 메시지들과 이 지상에서의 마지막 발현 장소가 될 메주고리에 성모님의 메시지와와 연대적인 면을 중심으로 재조명하고 통찰할 것이기에, 메주고리에 성모님 발현과 메시지는 선교회의 사명에 더욱 중요한 핵심이 될 것입니다.

A.D. 40년 스페인의 사라고사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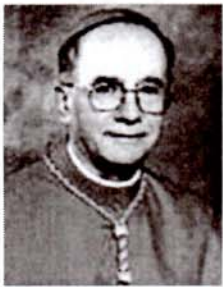


모님의 발현은 이제 발현 28주년을 맞이 하는 메주고리에에서 그 정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끝이 언제일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이제 머지 않은 시기에 그 발현은 끝을 보일 것이고, 이미 성모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지상에서의 마지막 발현이 될 것입니다. 평화의 모후 선교회가 새로운 제호로 발행하는 「평화의 모후」소식지가 성모님의 지향을 따라서 더 많은 사람들의 회개와 구원을 위해 지금부터 더 크고 넓게 쓰여지는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모님의 소식지 「평화의 모후」의 발행과 배포를 위해 애써 주시는 모든 봉사자들과 물심양면으로 성원해주시는 후원자들 그리고 마음으로 성모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시는 모든 독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M



사제의 해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 서한



사랑하는 사제 여러분,
교황 베네딕토 16세 성하께서 아르스의 본당 신부 요한 마리아 비안네성인의 선종 150주년을 기념하고자 선포하신 사제의 해가 다가옵니다.

사제의 해는 예수 성심 대축일이며 사제 성화의 날인 6월 19일에 교황 성하의 개막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사제들 자신이 이 사제의 해 선포를 반갑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교구, 본당, 모든 지역 공동체에서 자기들의 사제를 사랑하고, 사제들이 날마다 행복하고 거룩해지고 기뻐하며 사목 활동을 하는 것을 보고자 하는 가톨릭 신자들의 열렬한 참여로 이 사제의 해가 전 세계에서 널리 거행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진지한 결심과 열정으로 투신하고자 합니다.

사제의 해는 교회가 사제들을 자랑스러워하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경하며 또한 그들의 사목 활동과 삶의 증언을 인정하며 고마워하고 있다는 것을 특별히 사제들에게, 그리고 모든 신자와 더 넓은 사회에 알리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참으로 사제들은 그들의 활동뿐만 아니라 그들의 존재 자체로도 중요합니다. 사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일부 사제가 심각하고 유감스러운 상황에

연루된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수사하여 법에 따라 처벌하여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또한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점은, 이러한 사제들은 전체 성직자 가운데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거의 모든 사제들이 훌륭한 인품을 지니고 있으며 성무에 헌신적입니다. 이들은 늘 기도하고, 사랑으로 사목하며, 흔히 커다란 개인적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 인간을 향한 참된 사랑으로 가난한 이들과 고통 받는 이들과 연대하면서 자신의 전 존재를 바쳐 자신의 소명과 사명을 완수하고자 노력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어디서나 자기 사제들을 자랑스러워하는 까닭입니다. 이 사제의 해가, 사제의 신원, 가톨릭 사제직에 관한 신학, 교회와 사회 안에서 사제의 소명과 사명이 지니는 특별한 의미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시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사제직에 관한 연구와 묵상의 기회, 영성 훈련, 교회 대학들에서 이루어지는 회의와 신학 세미나, 학문적 연구와 발표가 필요합니다.

교황 성하께서는 2009년 3월 16일 성직자성 정기 총회 때에 하신 연설에서 사제의 해를 선포하시며 이 특별한 해와 더불어 "무엇보다도 사제 직무의 효력이 달려 있는 영적 완덕을 향한 사제들의 이러한 노력을 북돋우고자"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제의 해는,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사제들이 사제들과 함께 사제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해가 되고, 사제직의 영성과 사제들 개인의 영성이 쇠신되는 해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성찬례는 사제 영성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성직자성에서 얼마 전에 제안했듯이, 사제 성화를 위한 성체 조배와 여자 수도자와 봉헌 생활회원들, 그리고 여자 평신도들이 사제들을 위한 영적 모성을 더욱 발휘한다면 분명히 성화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사제의 해가 성직자의 구체적인 상황과 물질적인 생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따금 세계의 많은 곳에서 성직자가 극심한 가난과 곤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사제의 해가 종교적이고 공적으로 거행되어 지역 가톨릭 공동체의 사람들이 자기 사제들을 위해 기도하고 묵상하고 전례를 거행하며 그들에게 합당한 존경을 표현하도록 이끌어 주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전례 거행은, 그리스도인의 기쁨, 곧 하느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즐거워하신다는 확신에서 이루어지는 바로 그 기쁨을 드러내고 진작시키는 핵심적인 행사입니다. 그러므로 사제의 해가 사제들과 그들에게 맡겨진 공동체들 사이에 친교와 우애를 다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제의 해를 풍요롭게 해 줄 다른 많은 측면과 활동들이

있지만 여기에는 지역 교회의 충실한 창의성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모든 교구와 본당과 지역 공동체가 이른 시일 안에 이 특별한 해를 위한 효과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주목할 만한 행사로 사제의 해를 시작하는 것이 분명히 중요합니다. 교황 성하께서 로마에서 사제의 해를 시작하시는 2009년 6월 19일에 지역 교회들도 어떤 특별한 전례 거행과 축제를 통해 사제의 해 개막식에 참여하는 것이 이상적일 것입니다. 로마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교황님께서 주재하시는 이 복된 개막식에 참석하시어 자신의 참여 의지를 드높이시기 바랍니다. 하느님께서 분명 크나큰 사랑으로 이 사제의 해를 강복하시고, 성직자의 모후이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 사랑하는 사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빕니다.

성직자성 장관 클라우디오 우메스 추기경



메주고리에 음악과 함께하는 은총과 치유의 성시간에 초대합니다.

평화의 모후 선교회 후원회 월레미사 및 성시간

일시 :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목요일 오후 7시

(묵주기도 - 미사 - 성시간)

장소 :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02-6374-2200

문의 : 평화의 모후 선교회

Tel : 02-2281-3236 / 010-7310-9678, 010-9922-5936

Fax : 02-2281-3246

e-mail : qpmmk@gmail.com

서울 동작구 사당 1동 1031-29 한양빌딩 B1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성모님



신경남 스테파노

평화의 모후 선교회 지도신부 / 카푸친 작은 형제회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 나는 평화가 없는 이 땅에서 평화가 최고의 보물이 될 수 있도록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너희 가정에서 평화를 증거 하라고 너희를 부른다. 나는 너희의 평화의 모후이고, 너희의 어머니다. 나는 오직 하느님에게서만 오는 평화의 길로 너희를 인도하고 싶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기도하며, 또 기도하여라. 나의 부름에 응답해 주어서 고맙다." (2009년 4월 25일 성모님 메시지)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 나는 평화가 없는 이 땅에서 평화가 최고의 보물이 될 수 있도록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너희 가정에서 평화를 증거 하라고 너희를 부른다: 요한 복음 20장에 따르면 예수님께서서는 유대인들이 무서워 문을 닫아 걸고 있었던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시어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두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미사 때마다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라고 외치는 사제의 음성을 통해 지금도 계속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계속되는 초대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여전히 평화가 부족합니다. "평화가 없는 이 땅에서" 라는 표현을 쓰시는 성모님의 메시지를 보면 하늘에서 보시기에 이 땅에

는 평화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평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마음 깊은 곳에서는 평화를 원하면서도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참다운 노력은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평화는 오직 하느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선물 이기에 그 평화를 얻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모님께서서는 평화를 위해 기도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평화는 기도의 열매입니다. 오직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느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땅의 평화는 '나' 로부터 시작됩니다. 내 마음 안에 평화를 간직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평화를 전해줄 수 없고, 평화가 없는 이 땅에 평화의 씨앗을 심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먼저 자신의 평화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 다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느님의 평화를 갈망하고, 평화를 최고의 보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성모님께서서는 우리가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평화를 증거 하는 사도가 되고, 우리 가정이 그 증거의 첫 번째 장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가정은 사회의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핵심적인 조직입니다. 우리 가

이 땅에는 평화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평화가 없습니다.

정이 진정으로 평화롭다면 그 평화는 이웃으로 옮겨가게 되고, 그 물결은 온 세상 모든 가정에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가정에서 평화를 증거 할 것입니까?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스런 눈으로 서로 바라보고, 따뜻한 미소로 반겨주고, 위로와 격려의 말로 서로 힘을 주며, 부족한 허물이 보이면 비판하기 보다는 감싸주고 채워주려는 자세면 충분합니다. 집 밖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한 미소와 말로 대하면서, 집에서는 인상 쓰고,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식구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은 절대 평화를 증거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모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나는...너희 가정에서 평화를 증거 하라고 너희를 부른다."

나는 너희의 평화의 모후이고, 너희의 어머니다. 나는 오직 하느님에게서만 오는 평화의 길로 너희를 인도하고 싶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기도하며, 또 기도하여라: 예수님께서서는 이 세상을 떠나시기 바로 직전 두 가지 큰 선물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성 목요일에는 우리를 위해 '성체성사'를 세워주셨고, 성 금요일에는 '성모님'을 우리의 어머니로 주셨습니다. 요한 복음 19장 26-27절은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이분이 네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예수님께서서는 성모님을 '여인' 이라고 부르심으로써 그분을 만민의 어머니로 만들어주셨고, 모든 인류를 대표하여 그 자리에서 있던 제자 요한을 그분의 아들이라고 하심으로써 모든 인류를 성모님의 품에 맡겨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성모님을 우리의 어머니로 주셨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비록 우리 육신의 어머니가 계시기는 하지만 성모님이야말로 우리의 참된 어머니이십니다. 그분을 자신의 어머니로 인식하든 못하든, 그분을 어머니로 받아들이든 그렇지 않든 모든 사람이 다 그분의 자녀들이고, 그분은 모든 이의 영적 어머니이십니다. "이분이 네 어머니시다."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성모님을 우리의 참된 어머니로 모셔 들여야 합니다. 제자 요한처럼 그분을 우리 집에 모셔

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어머니로 받아들이고, 우리 집에 모셔 들인다면, 그분은 우리를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우리 가정을 예수님이 함께 머무시는 하느님의 집으로 만들어주실 것입니다.

1981년 6월 24일 메주고리에 첫 발현을 시작하신 성모님께서서는 당신을 '평화의 모후'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이는 성모님의 호칭이면서 동시에 그분의 메주고리에 발현 이유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목적어입니다. 평화의 모후께서는 우리 인류를 평화로, 그 평화의 근원이신 하느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27년 11개월이 지난 지금도 계속해서 같은 목적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성모님의 열망은 단 한 가지입니다. 즉, 우리를 오직 하느님에게서만 오는 평화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기 위해 여전히 지치지 않는 목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기도하며, 또 기도하여라."

예수님, 아오스팅 성인의 말을 빌어 당신께 기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 당신 안에서 쉬기까지 제 마음은 착잡하기만 합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 평화가 없는 제 마음 안에 당신의 평화를 주십시오. 두려움과 공포에 가득 찼던 제자들에게 "평화가 너희와 함께!" 라고 말씀하셨던 당신의 그 음성을 저도 듣고 싶습니다. 평화의 근원이신 예수님, 오직 당신만이 저에게 참된 평화를 주실 수 있습니다. 당신께서 주시는 평화를 받아들이기 위해 기도로 제 마음을 당신 앞에 열어 놓습니다. 예수님, 제 마음 안으로 들어오셔서 당신의 평화로 저를 다스려 주소서.

평화의 모후이신 성모님, 당신의 부르심대로 저는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제 가정에서 가장 먼저 평화를 증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결심을 받아주시고, 저의 삶 안에서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머니 마리아여, 아주 작고 유순한 아기처럼 저를 어머니 당신의 품에 맡겨드리오니 저를 평화의 근원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해주시고, 평화의 길에서 벗어나는 일이 있으면 저의 손을 다시 잡아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M**



너희의 믿음을 증거하도록 이끌어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 시기에 세례 받은 모든 피조물 위에 성령께서 임하시도록 기도하라고 너희 모두를 부른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너희 모두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이들에게 너희들의 믿음을 증거하도록 이끌어주실 것이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있고, 지극히 높으신 분 대전에서 너희를 위해 전구하고 있다. 나의 부름에 응답해 주어서 고맙다."

(2009년 5월 25일 성모님 메시지 묵상)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 시기에 세례 받은 모든 피조물 위에 성령께서 임하시도록 기도하라고 너희 모두를 부른다: 이번 달 메시지에서 성모님께서는 '세례 받은 모든 피조물'이라는 색다른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오직 사람만이 세례를 받을 수 있기에 '세례 받은 모든 이'라는 표현을 쓰실 수도 있었을텐데 성모님께서는 왜 '세례 받은 모든 피조물'이라는 표현을 쓰셨을까요? 이 표현을 묵상하면 할수록 그 의미가 참으로 깊은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이 표현은 우리가 어떤 은총을 받았고, 현재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으며,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는 존재인지 깊이 묵상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 창조된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모습대로 만드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당신 교회로 부르시어 세례성사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당신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세례성사의 은총과 특전은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불신앙 속에 살으로써 그 은총을 잃어버리고, 세례로 고귀해진 우리의 존엄함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잊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냥, 마치 하나님처럼 행세하기도 합니다. 성모님께서는 '세례 받은 모든 피조물'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세례성사의 의미를 다시 한 번 깊이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더욱 깊이 묵상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성모님께서는 또한 '세례 받은 모든 피조물 위에 성령께서 임하시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찰과 묵상을 넘어서서 성령 강림을 위해 기도하도록 우리 모두를 부르십니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너희 모두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이들에게 너희의 믿음을 증거하도록 너희를 이끌어주실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굳게 결심하고 굳은 의지를 가지고 선하게 살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나약한 피조물이기에 죄에 떨어지고, 악에 빠지곤 합니다. 성 바오로 사도는 자신의 나약함과 악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는 내가 바라는 것을 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싫어하는 것을 합니다...사실 내 안에, 곧 내 육 안에 선이 자리 잡고 있지 않음을 나는 압니다. 나에게 원의가 있기는 하지만 그 좋은 것

오소서, 성령님,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 정배, 마리아의 티 없으신 성심의 힘있는 전구를 들으시어 오소서!”

을 하지는 못합니다. 선을 바라면서도 하지 못하고, 악을 바라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하고 맙니다... 나는 과연 비참한 인간입니다. 누가 이 죽음에 빠진 몸에서 나를 구해 줄 수 있습니까?” (로마 7:15,17-19,24) 사도 바오로의 말씀처럼 우리 인간은 참으로 약하기 그지 없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참된 선과 구원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참으로 선하게 살고, 늘 쇄신되려면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느님의 힘, 아니 하느님 자신이 필요합니다.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는 보호자 성령(요한 14:16 참조)이 필요합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오셔야 우리는 모든 악에서 보호를 받고,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성모님께서서는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그 다락방에서 열두 사도들을 비롯한 다른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실 때 성령 강림을 체험하셨습니다. 그분은 성령의 힘으로 박해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문을 박차고 나가 힘차게 복음을 전하는 열 두 사도의 모습, 자신의 힘이 아니라 온전히 하느님의 힘, 즉 성령께만 의지하는 제자들의 쇄신된 모습을 직접 목격하셨습니다. 바로 그 성모님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르코 복음에 따르면 배반자 유다를 제외한 열한 제자가 식탁에 앉아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불신과 완고한 마음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들이 되살아난 당신을 본 이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마르 16:14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당시에도 여전히 의심하는 사도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마태 28:17 참조) 이러한 사도들의 불신과 완고한 마음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바로 성령 강림을 통해서였습니다. 불 혀의 모양으로 사도들 위에 내리신 성령께서는 그들의 마음에서 모든 완고함을 없애주시고, 믿음을 충만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가득 찬 그들의 설교와 모범을 통해서 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과 구원을 받아들였습니다.(사도 2장 참조)

우리가 참된 믿음의 증거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충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 온갖 박해와 죽음도 마다하지 않는 믿음은 오직 성령께서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성령

께서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믿음을 주시고, 하느님과 그분의 사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에게 믿음을 증거하여 모든 이가 영원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루카 11:9-10,13) 예수님 말씀대로 하느님 아버지께 세례 받은 당신의 모든 자녀들 위에 성령을 내려주시도록 청합시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있고, 지극히 높으신 분 대전에서 너희를 위해 전구하고 있다. 나의 부름에 응답해 주어서 고맙다 :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성령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며 기도하던 사도들에게 당신의 성령을 보내주셨음에 감사 드립니다. 예수님, 당신께서 약속하신 대로 임하신 성령께서는 사도들을 비롯한 당신의 제자들을 새롭게 하시고, 굳은 믿음으로 힘차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 오늘날 당신의 또 다른 제자들인 저희에게도 성령을 보내주시시오. 저희는 당신 성령의 힘으로 마음과 삶이 완전히 새롭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수님,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의 믿음을 충만하게 해 주시어, 어머니 마리아의 말씀처럼 하느님과 그분의 사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이들에게 그 믿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사도들의 모후이신 성모님, 세례 받은 저희 위에 성령께서 임하시도록 기도하라고 불러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어머니께서 사도들과 함께 하시면서 연약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성령의 오심을 전구하셨던 것을 저희는 굳게 믿습니다. 성모님, 당신께서 저희와 함께 계시고, 저희를 위해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 대전에서 전구해주시니 감사 드립니다. 당신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저희도 사도들처럼 당신과 함께 마음을 모아 성령의 오심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 정배, 마리아의 티 없으신 성심의 힘있는 전구를 들으시어 오소서! **M**



지금은 내 승리의 때이다.

227. 81. 7. 1. 산마리노-발드라고네.
'마리아사제운동' 책임자들과의
다락방 모임

사랑하는 아들들아, 너희는 여기, 내가 너희를 위해 마련한 내 집에서 지속적인 다락방 모임을 열어, 이 천상 엄마와 함께 기도와 형제적 나눔의 며칠을 보내고 있다.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다. 너희의 기도와 한마음이 되어, 이 기도를 내 성자 예수님을 통해 성부께 바치며, 너희를 도와 서로 알고 서로 사랑하게 하고, 완전한 사랑으로 이끌어간다. 너희의 상처에는 향유를 부어주고, 너희의 약함에는 힘을 준다. 그리하여 상처 입은 내 마음은 내 조그만 아이들인 너희에게서 위로를 받고, 내 슬픔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변화된다. 그런데 금년에도 내가 너희를 여기에서 보고자 한 이유를 알겠느냐? 그것은 너희 천상 엄마 - 태양을 입은 '여인' - 와 원수인 붉은 '용' 사이의 전투가 이미 결정적 국면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최근 몇 달 동안 일어난 일에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으로서, 이는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정화기에 대해 내가 이미 예고했던 대로이다. 그러니 '지혜의 성령' 안에서 너희 시대의 표징을 해독하는 방법을 익혀두어라. 나는 너희를 불러 이곳으로 올라오게 했고 힘을 주고 있다. 이제 나

의 큰 계획이 다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계획은 오직 너희를 통해서만 완성될 수 있다. 나는 너희에게서 내 뜻에 대한 완전한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 더 이상은 의심하지도 주저하지도 말고, 확신 없는 상태로 있지도 말아라. 이러한 것들이야말로 간교하고 위험한 내 원수의 무기이니, 너희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을 그가 이 무기들로 마비시켜 왔는지 모른다! 너희 주변 사람들을 쳐다보지 말아라. 너희 귀에 들리는 비판의 소리에도, 나의 이 '사업'을 둘러싸고 종종 일어나는 회의론에도, 도무지 마음 쓰지 말아라. 누구나 다 나의 사업을 이해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것은 아니다. 이는 성부께서 예수님을 통해 내 작은 아기들인 너희에게 주신 은혜이니, 예수님께서 너희를 당신 '사랑의 성령'으로 내 티 없는 성심의 요람에 넣어 주신 것이다.

오직 티 없는 내 성심 안에만 너희 안전의 원천이 있다. 너희는 이 안에서, 나에게 의해, 너희를 기다리는 대전투에 대비하게 된다. 이 안에서 나에게 의해, 기도의 훈련을 받는다. 기도야말로 너희가 가지고 싸워야 할 무기인 까닭이다. 더 많이 기도하여라. 언제나 기도하여라. 너희의 활동 하나

하나 마다 참으로 기도가 되도록 해야 한다. '미사'를 그대로 살아내어라. '미사'는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너희를 희생 제물로 바치는 것이다. '성무일도'를 열심히 바쳐라. 이것은 너희 하루 시간의 리듬을 하느님께 봉헌하는 기도이다. '거룩한 묵주기도'를 사랑과 기쁨을 기울여 바쳐라. 그리고 지난 수년 동안 너희에게 해 온 나의 말에 대해 묵상 하여라. 이 말이 너희로 하여금 '복음'을 이해할 수 있게 인도한다. 너희는 오늘날 '복음'을 그대로 실천하면서 만민에게 선포해야 한다.

(다락방 모임을 마치고) 이 산에서 내려갈 때 너희는 나에게 의해 산 제물로 변모되어 있을 터이고, 그런 너희를 성령께서 성부께 바치실 터이다.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또한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하루빨리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 성심 안에서 너희는 고통을 참아 받도록, 나의 도움을 받는다. 그리하여 이제, 티 없는 내 성심의 요람이 날마다 너희를 희생 제물로 바치는 제대가 된다. 하느님의 정의를 달래 드리려는 것이요, 당신의 자비가 소나기처럼 쏟아져 내려 세상을 쇠신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기에 너희는 내 사랑하는 만아들인 교황을 따라 큰 고통을 겪도록 부름 받았다. 교황은 지금 자기 자신의 피로 흠뻑 젖은 채 '갈바리아'로 향해 있는 길을 가고 있고, 너희도 그와 함께 그 길을 가도록 이 천상 엄마가 인도하고 있다.

특히, 이 안에서 너희는 나의 영성을 받아 완전한 사랑에 이르게 된다. 이 '운동'에 참여하는 형제들이 모두 너희와 영적으로 가까이 있으며, 세상 어디에나 퍼져 있는 내 사랑하는 아들들의 마음에도 이 며칠 특별한 은총이 내렸



다. 내가 너희 안에서 살면서 너희를 통해 만민에게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때가 왔다. 내가 너희 마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너희 눈으로 보고, 너희 입술로 위로하며 북돋아주고, 너희 발로 걷고, 피로 얼룩진 너희 발자국을 따라가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너희 몸으로 고난을 받고자 하는 것이다. 지금은 마지막 전투의 때이다. 따라서 내 승리의 때이기도 하다. 그래서 한 번 더 너희를 불렀고, 너희는 내게 응답하여 이 다락방으로 왔다. 여기서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사랑하며 성령께 간구하고 있다. 너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볼 수 있도록, 성부께서 성자를 통해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시리라. **M**

이 메시지는 1973년부터 1997년까지 성모님께서 스테파노 곱비 신부님에게 내적 말씀으로 주신 메시지입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성모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 사제들에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편집자 주 -

2009년 6월 2일 미리야나에게 주신 성모님 메시지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의 사랑은 너희의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찾는다.

너희의 그 사랑은 너희가 지금 그대로의 모습대로 남아 있도록 하지 않고, 그 대신 너희를 변화시키고, 내 아들을 신뢰하도록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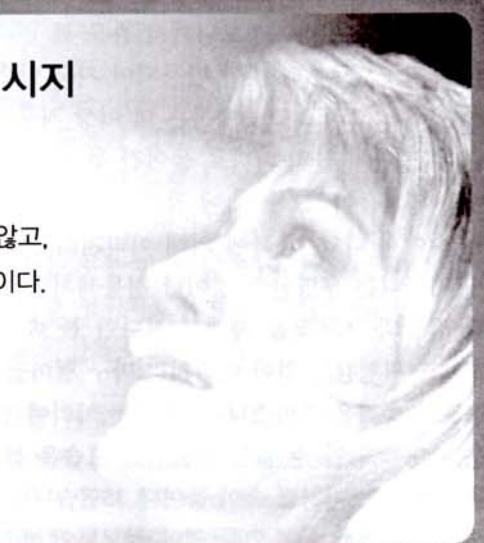
나의 자녀들아, 나는 사랑으로 너희를 구원하고 있고,

너희를 내 아들의 선을 참되게 증거하는 사람들로 만들고 있다.

그러므로, 나의 자녀들아,

내 아들의 이름으로 사랑을 증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고맙다."



파티마의 세 가지 비밀
(‘메주고리에’ 47호에서 계속)

파티마의 두 번째 발현이 있었던 1917년 6월 13일 성모님께서는 다음 달 13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세 아이들을 만나기로 약속하신 후 묵주기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셨다: "자, 묵주기도를 바칠 때는 매 단이 끝나면 다음과 같은 기도를 추가하길 바란다.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되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구원경으로 알려져 있는 이 기도는 1930년 파티마 성모 발현 공인 이후 묵주기도에 정식으로 추가되었다. 성모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1917년 7월 13일 그분의 세 번째 발현이 이루어졌다. 이 세 번째 발현에서 성모님께서 발현 목격 증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비밀을 알려주셨다.

첫 번째 비밀은 공포로 사람을 질리게 할 만큼의 무시무시한 지옥에 대한 환시였다. 루시아는 그 장면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성모님께서 손을 펴시자 그곳으로부터 빛이 반사되어 지구 안으로 뚫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더 이상 지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불의 바다로 들어간 듯 사람의 모습을 한 악마와 영혼들이, 그 불 속에 잠겨 있는 듯 연기 구름과 함께 불 속에서 나와, 불꽃에 의해 이리저리 흔들리며 불 속에서 떠다니는 투명한 검정이나 청동색처럼 보였으며, 고통과 절망의 부르짖음 속에서 커다란 불 속의 불티와 같이 무게도 평형감도 없이 이리저리 마구 떨어졌는데 우리에게 공포와 충격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악의에 찬 수많은 무서운 마귀들과 알 수 없는 동물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불 속의 검댕이처럼 속이 들여다 보였습니다." 루시아가 나중에 전하기를 이미 그들 곁에 성모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나는 묵주기도의 모후이다."

- 파티마 성모 발현과 메시지 (2) -

고 있었고, 또 이미 성모님께서 발현목격증인들은 나중에 천국에 갈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셨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죽을 것만 같았다고 했다.

두 번째 비밀은 영혼들의 구원을 위한 성모님의 티 없으신 성심께 대한 봉헌, 제1차 세계 대전의 종식과 제2차 세계 대전의 발발, 전쟁과 기근 그리고 교황과 교회에 대한 박해로 드러나는 하느님의 징벌, 마리아의 티 없으신 성심에 대한 러시아의 봉헌, 첫 토요일 배상의 영성체, 성모님의 티 없으신 성심의 승리 그리고 평화의 도래 등에 관한 예언이었다. 성모님께서 세 명의 목격 증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희는 불쌍한 죄인들의 영혼이 가는



목격자 히야친따, 프란치스코, 루시아



1917년 10월 13일 태양의 기적을 목격하는 군중들

지옥을 보았다. 이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나는 이 세상에 내 티 없는 성심에 대한 신심을 일으키기를 원한다. 만약 사람들이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면 많은 영혼들이 구원될 것이고, 평화가 올 것이며, 전쟁은 곧 끝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느님께 죄짓는 것을 멈추지 않으면, 더 큰 전쟁이 교황 비오 11세 재임시에 일어날 것이다. 전쟁, 기근, 그리고 교황과 교회에 대한 박해 등의 수단으로 이 세상은 벌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막기 위하여 나는 내 티 없는 성심에 러시아를 봉헌할 것과 매월 첫 토요일에 배상의 영성체를 요청하러 다시 오겠다. 만일 나의 요구들을 지키면 러시아는 회개할 것이고, 평화가 올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렇지 않으면 러시아는 그들의 오류를 온 세상에 퍼뜨리고 전쟁을 일으킬 것이며, 교회는 박해를 받고, 의인들은 순교를 당할 것이며, 교황은 많은 고통을 받고, 여러 민족들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결국은 나의 티 없는 성심은 승리할 것이다. 교황은 러시아를 나에게 봉헌할 것이고, 그들은 회개하여 평화의 시기가 세상에 도래하게 될 것이다. 포르투갈은 신앙의 진리가 항상 보존될 것이다."

복되신 어머니 마리아께서 예언하신 대로 모든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고, 공산주의 러시아는 무신론과 유물론의 오류를 온 세상에 퍼뜨리고 전쟁을 일으켰으며, 2차 세계 대전에서는 5천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야 했다. 하느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공산주의 이념은 세계 곳곳에 그 악마의 씨를 뿌렸으며, 세계 여러 나라들이 소련에 흡수되어 지도상에서 그 이름이 사라졌다. 또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들은 혹독한 시련을 겪어야 했다. 1945년 한 해에만 추기경을 포함한 800명이 넘는 사제들이 체포되고 교회는 문을 닫았다. 불행하게도 파티마의 두 번째 비밀은 적중하고 말았다. 1984년 3월 25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전 세계 모든 주교들에게 러시아 봉헌을 위해 당신도 합류할 것이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고, 실제로 파티마에서 성모님께서 요청하신 대로 전 세계 주교들과 함께 러시아를 성모님의 티 없으신 성심께 봉헌했다. 그 결과 그 다음 해

인 1985년 소비에트 연방은 미하일 고르바초프 서기장의 등장과 함께 무너져 버렸고, 그 이후 중국과 북한을 제외한 모든 공산 국가들이 공산주의를 포기하고 새로운 민주 국가들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파티마에서 성모님께서 예견하신, 당신의 티 없는 성심이 승리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의 한 구체적인 실현이었다.

파티마 제3의 비밀로 알려졌던 세 번째 비밀은 갈멜 수도원의 수녀가 된 루시아에 의해 1944년에 쓰여졌으며, 1957년 이래 교황청에 보관되어 오다가 2000년 5월 13일 파티마에서 두 명의 발현목격자인 히야친타와 프란치스코의 시복식을 거행하는 자리에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세상에 공표되었다. 그리고 이어 2000년 6월 26일 오전 교황청 보도국이 "파티마의 메시지"를 발표함으로써 파티마 제3의 비밀은 공식적인 문서로 세상에 전해지게 되었다. 이 문서는 당시 신앙교리성 장관 요제프 라칭거 추기경과 차관 파르치시오 베르토네 대주교의 서명을 받았다. 40쪽에 이르는 이 문서는 베르토네 대주교의 서문으로 시작하여 1941년 8월 31일자로 된 루시아 수녀의 파티마 비밀의 첫 번째와 두 번째 비밀 메시지, 세 번째 비밀 메시지의 원문의 사진 복사본과 번역문,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루시아 수녀에게 보내는 2000년 4월 19일자의 서신, 2000년 4월 27일 포르투갈 갈멜 수도원에서 있었던 레이리아-파티마의 세라핌 데 수우사 페레이리아의 실바 주교, 베르토네 대주교 그리고 루시아 수녀 사이에 있었던 대담의 요약, 2000년 5월 13일의 히야친타와 프란치스코의 시복 후의 국무원장 안젤로 소다노 추기경 담화와 라칭거 추기경의 신학적 주해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은 1917년 7월 13일 파티마의 코바 다 이리아에서 세 어린이들에게 계시되었고, 1944년 1월 3일 루치아 수녀가 제출했던 파티마의 세 번째 비밀의 포르투갈어 원문의 완역이다.

"저는 저에게 지극히 거룩하신 하느님의 어머니과 주교



님을 통해 하라고 명하신 하느님께 순종하며 이 글을 작성합니다. 제가 이미 설명하였던 두 가지 계시 후에, 성모님의 왼쪽과 약간 위에서 우리는 한 천사가 불타는 칼을 그 왼손에 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번쩍이는 그것은 마치 세상에 불을 지르듯이 불꽃을 내뿜었습니다. 하지만 성모님께서서 오른손으로부터 그를 향해 내보낸 광채에 맞자, 불꽃들은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의 오른손으로 지구를 가리키며, 그 천사는 큰 소리로 '회개, 회개, 회개하라!' 하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느님이신 거대한 빛 안에서 무엇인가를 보았습니다. '거울 앞을 사람들이 지나갈 때, 거울 안에서 어떻게 보이는 것과 유사한 것처럼' 한 주교가 흰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교황이라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다른 주교들, 사제들, 남녀 성직자들이 가파른 산을 오르고 있었고, 그 꼭대기에는 나무껍질이 붙은 코르크 나무 같은 거칠게 다듬은 통나무로 된 커다란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다다르기 전에 교황님은, 반은 황폐해지고 그 반은 떨고 있는 큰 도시를, 고통과 슬픔으로 인해 괴롭힘을 당하여 절뚝거리는 발걸음으로 지나갔습니다. 교황님은 가는 도중에 만났던 시신들의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산꼭대기에 이르러 큰 십자가 밑에서 교황님은 그에게 총을 쏘고 화살을 쏘는 병사들에 의해 무릎 꿇은 채 죽으셨으며, 같은 방식으로 차례차례 주교들, 사제들과 남녀 수도자들과 여러 계층과 위치의 평신도들이 죽었습니다. 십자가 양쪽엔 두 천사가 각각 그 손에 수정으로 된 성작을 들고 있었는데, 두 천사는 거기에 순교자들의 피를 모았고 그것으로 하느님께 나아가는 영혼들에게 뿌렸습니다."

이 원문 번역본이 함께 실렸던 문서에서 라칭거 추기경은 파티마 제3 비밀을 해석하는 열쇠가 바로 세 번 거듭되는 천사의 커다란 외침, 곧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에 있다고 밝혔다. 시대의 징표를 이해한다는 것은 곧 회개의 절박성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이야말로 역사의 이 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올바른 응답이라는 것

이다. 추기경은 제3의 비밀 두 번째 부분을 해석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환시에서 하얀 옷을 입은 주교, 곧 교황의 역할은 특별합니다. 교황이 거의 폐허가 된 도시에서 고통과 슬픔에 쌓여 다른 주교들, 사제들, 수도자들 그리고 다른 여러 신분의 신자들 앞에서 시체들 사이를 지나가는 모습은 교회가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으며, 폭력과 파괴와 박해의 시대를 살고 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지난 한 세기의 역사가 이 모습 안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루시아 수녀의 글에는 교황이 산의 정상에 다다랐을 때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해당하지만,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성모님의 손'의 도움으로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불변의 운명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신앙과 기도야말로 역사를 바꿀 수 있는 힘이며 기도는 총알보다 강하고 신앙은 군대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십자가의 두 팔 아래서 순교자들의 피를 모아 하느님의 길을 충실히 따르는 사람들에게 뿌리는 천사들의 모습은 피와 눈물을 통한 구원의 희망을 보여 줍니다. 이처럼 파티마 제3 비밀의 결론은 희망입니다. 하느님을 찾는 사람에게 징표가 되는 것은 고통받는 교회, 순교자들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겪는 고통에서 정화와 쇠신의 힘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라칭거 추기경은 파티마 제3 비밀에서 세상 종말에 관한 계시를 기대했던 사람들에게는 실망스럽겠지만, 파티마의 계시는 개별 사건에 관한 한 과거에 속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즉, 이 비밀의 의미는 구원의 길인 기도를 권고하고, 참회와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며, 마리아의 순종("그대로 이루어지소서")으로 이 세상에 구세주가 오시고 역사가 바뀌었듯이, 하느님을 바라보는 깨끗한 마음으로 악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파티마 제3의 비밀에 대한 교황청의 공식적인 입장에도 불구하고, 다른 측면에서 제3의 비밀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입장이 있다. 그것은 다른

복되신 어머니 마리아께서 예언하신 대로 모든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으며...

아닌 '마리아 사제 운동'의 창시자 스테파노 곱비 신부의 입장인데, 2000년 6월 25일부터 7월 1일까지 이탈리아 폴레바렌차에서 열린 마리아 사제 운동 국제 피정 중 강론을 통해 펼쳐졌다. 다음 글은 격월간 <마리아>103호에 실린 곱비 신부의 우리말 번역이다.

"저는 이에 관한 해설서를 한 번도 입수한 적도 읽어 본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3의 비밀에 관한 발표문을 읽고, 제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해석을 한 번 해보고자 합니다. 이 해석은 교회의 공식적인 해설에 대한 대안도 아니며, 보충도 아닙니다. 저는 교황청의 신앙교리성이 발표한 공식적 설명을 원칙적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며, 아래의 강론은 오로지 저의 개인적인 견해를 밝혀 두는 바입니다. 루시아 수녀님이 여러 환시(幻視)에서 보았던 것은 상징성 있는 그림들으로써 실재를 표현하는 것들이지만, 해석이 뒤따라야 하는 것들입니다. 루시아 수녀님의 환시는 맨 먼저 한 천사가 왼손에 불꽃을 들고 나타나서 이 세상을 불지르는 듯이 보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이렇게 말하였다고 했습니다. "회개, 회개, 회개하라!" (보속, 보속, 보속) 그러나 그 천사는 불을 지르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성모님이 손으로 막으시고 벌을 정지시키시기 때문인데, 성모님의 손에서 아주 강한 빛이 분출되어 이 빛이 그 불꽃을 소멸시켰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 부분에 파티마 메시지의 핵심이 들어 있다고 보이는데, 그것은 성모님께서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 기도와 보속을 간청하러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모님은 우리 인류에게 하느님에게로의 회귀와 회개를 요청하십니다. 만일 인간들이 성모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더라면, 2차 세계 대전은 없었을 것입니다. 제2의 비밀에 이미 이런 말씀이 들어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사람들이 행한다면, 평화가 올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비오 12세 교황 때에 새로운 전쟁이 올 것이며, 교회와 교황에 대한 박해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의 구원을 위해 기도와 보속을 행하여라." 이 제3 비밀의 세 번째 부분에서 이 사실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천사가 세상을 불지르려 하지만 성모님의 중개로 인해, 성모님의 자모적 손길로 인해 막아지기 때문입니다. 만일 세상이 "회개, 회개, 회개하라!" (보속, 보속, 보속)의 요구를 따른다면, 이것이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파티마 메시지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살해되는 교황, 사제, 주교, 신자들에게

해당되는 환시입니다. 이것은 박해에 관한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이것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이미 자객에게서 당했으나 건강을 회복한 그런 암살 기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죽고 살해되는 것에 관한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비밀의 공표가 가능하도록 교황님께서 이러한 해석을 내리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황님은 지난 수요일 알현에서, "이제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여 파티마의 제3의 비밀을 공개하기로 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교황 외에도 주교들, 사제들과 신자들이 죽는 박해의 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주교, 사제, 신자들이 산으로 올라갑니다. - 이것은 상징적입니다. - 그 산 위에는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순교를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골고타를 향해 가셨을 때, 그분께서는 십자가형을 향해 가신 것입니다. 따라서 십자가가 서 있는 산으로 오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는 거의 다 파괴된 시대를 걸어가면서 죽은 이들 곁을 지나가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사살됩니다. 뒤따라 주교들, 사제들, 평신도들도 사살됩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박해와 순교가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라칭거 추기경이 말하기를, '교회는 그 어떤 해석도 규정하지 않고 있다.' 라고 한 말을 저는 들었습니다. 즉 교회는 누구에게나 해석의 자유를 허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만일 저의 개인적인 해설을 시도한다면, 이는 이런 의미에서 교회에 대한 순종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비밀의 맨 첫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천사가 세상에 불을 질러 파괴하려 하는데 천주의 성모님이 개입하시어 이를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회개, 회개, 회개하라!" (보속, 보속, 보속)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성모님은 개입하실 수 있습니다. 성모님은 심판을 만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 우리가 "보속!" 이라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일 경우에만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속은 구체적으로 회개하는 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며, 이것이 바로 파티마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성모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구원하려면 먼저 회개하여라." 그러나 만일 이 인류가 응답하지 않고, 보속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계속 가면서 매일 더 나쁘게 되고, 계속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며 이교도적인 문화를 만들어 내고,

인류에 대한 벌은 노아 홍수이래 유래가 없을 정도로 클 것이며...

법에 어긋나는 삶을 산다면, 과연 이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모님께서 천사의 불을 언제까지나 정지시킬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 비밀에 언급된 것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는 보속하라는 천사의 권유에 인류가 어떻게 대응하는가 하는 것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교황의 죽음에 관해 언급된 바는, 1995년 5월 13일의 <성모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 사제들에게>에서 언급된 메시지와 1862년의 돈보스코의 꿈과도 일치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교황님이 적대적인 총알에 피격을 당합니다. 그분의 일꾼들이 부축하여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잠시 후에 또 다시 적대적 총알을 맞고 죽어 땅바닥에 쓰러집니다." 만일 "보속, 보속, 보속" 이라 외치는 천사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 천사는 사실 우리를 구해 주려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 성모님은 당신 손으로 벌을 더 이상 만류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메시지는 인류가 체험하는 순간들을 밝혀 주는 다른 사건들을 통해서 보완되어야 합니다. 인류가 보속을 외치는 천사의 권유에 응한다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만일에 인류가 이에 거역한다면, 그 다음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루시아 수녀님은 "코임브라 수녀원" 에서 메시지를 몇 개 더 받았고, 수많은 편지들을 교황님께 보냈으며, 교해신부들, 주교들 그리고 추기경들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마도 교황청 문서고에 폐쇄되어 보존되고 있을 이러한 여러 글귀들 안에 비밀의 마지막 열쇠, 즉 인류가 보속을 외치는 천사의 초대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것이 들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글귀들이 우리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으므로 우리는 여기서 다른 사건들을 관찰하면서 다른 방법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성모님은 오로지 파티마에서만 발현하시는 것이



요한 바오로 2세와 루시아 수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를 들면, 일본의 '아키다'를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아키다에 세 번 갔었습니다. 저는 우선 첫 주교와 만나 얘기를 나누었는데, 이 주교는 몇 년 전에 타계하셨지만, 생전에 교서를 통해 아키다의 발현의 진정성을 인정하신 분이십니다. 제가 기억하건대, 그분은 약간 슬픈 표정이었는데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 현상이 초자연적인 것임을 증명할 수 있으며, 성모님께서 우실 때 (성모님은 거기서 101번이나 눈물을 흘리셨음) 바로 그 현장에 있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그 목격자 (수녀입니다) 의 교해신부였습니다. (저도 그 수녀를 만나 봤습니다. 그녀는 관절굴절로 완전히 꼬부랑 할머니였으며 항상 통증을 느끼고 있는 불쌍한 수녀였습니다.) 그 주교가 당시에 걱정하고 있었던 것은, 그가 도쿄 대주교가 이끄는 한 신학위원회에 조사를 위임하였는데, 그 대주교가 우선 그 수녀가 성모상으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할 수도 있는 모든 사이비 심리학적 능력을 조사해 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신학교의 한 예수회원에게 영향을 받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주교는 그 수녀가 그 성모상에서 2000km나 떨어진 곳에서 자기 친척들을 만나고 있을 때, 성모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 주교는 신학교 교수들과 신학자들, 그들 중에는 신학자요 마리아학자로서 일본에서 마리아 사제운동의 책임자로 있는 톤누티 신부 등으로 하여금 교구 위원회를 설치하고, 교회법적인 조사 후 이 발현과 메시지가 참되다고 인정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아키타의 제3의 메시지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진전이 이루어졌습니다! 7월 13일의 파티마의 메시지로부터 거의 한 세기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만일 인류가 보속에의 초대를 수용하였더라면, 모든 것이 만류되었을 지도 모릅니다. 교회와 관련되는 것은 교회 내부 깊숙이 분열이 침투하였다는 점입니다. 아키다의 제3 메시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교들이 주교들을 반대하고, 추기경들이 추기경들을 반대하고 있다." 추기경들과 주교들에게 정말 그러하냐고 물어봐야 하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그것이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인류에 대한 벌은 노아 홍수이래 유래가 없을 정도로 클 것이며, 살아 남은 자들은 죽은 자들을 부러워할 만큼 고통을 받으리라." 이것이 아키다의 메시지입니다. 물론 이런 류의 것은 파티마의 메시지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파티마의 메시지는 보속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인류는 보속을 거절하였고, 하느님으로

세상의 정화를 위해 시련이 반드시 와야 합니다!

부터 더 멀어졌으며, 물질주의적이고 이교도적인 문화를 만들어 냈고 또 이보다 더 나쁜, 이론적이고 실제적인 무신론을 확산시킨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친애하는 동료 여러분, 세상의 정화를 위해 시련이 반드시 와야 합니다! 진전되는 여러 사건들에서 우리는 성모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권유하신 것을 우리가 귀담아 듣지 않았으며, 성모님께서 인류가 받을 벌을 없애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통해, 파티마의 메시지에서 증명되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내부에서 분열되고 배교라는 오류의 확산으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보십시오, 앞으로는 성모님의 개입이 결정적이라는 것이 논리적 귀결입니다. 성모님 개입의 한 예가 바로 마리아 사제 운동의 책인 것입니다. 그 책은 하나의 종합이며, 아키다에서 언급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의 현 상황은 배교가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친애하는 동료 여러분, 눈을 크게 뜨십시오. 저는 진리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독일, 불란서, 미국, 캐나다, 브라질 등 교회의 상황은 어디서나 다 똑같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께서 당신 빛으로 우리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위기를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나를 놀라게 한 것은, '이 위기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를 교황님이 어떻게 더 이상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은 맨 먼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교황님이 제3의 비밀을 알고 계시니까 우리에게 닥쳐올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닥쳐올지에 대한 제3의 비밀은 두 가지의 가능성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첫째 가능성은 교황님이 다른 정보들을 갖고 계시든지, 즉 루시아 수녀님이 계속해서 성모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아 이를 교황님께 보내 드린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말입니다. 그리고 둘째 가능성은 이 교황님이 유사 이래의 최고의 카리스마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황님은 스스로 체험을 하셨고, 그 체험을 토대로 교황님은 시련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지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황님은 분명히 영광 중에 오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언급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러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황님은 우리가 기다리는 새로운 시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카리스마적 체험 없이는, 성령의 확실한 비추임 없이는 교황님이 현실의 세계에서, 교회의 짐과 고통

을 자신이 떠맡아지고 가는 교회의 이 현실적 상황에서 이런 말씀들을 쓰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선교사들을 통해 베푸신 헤아릴 수 없는 선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래를 내다보는 시선을 지니고 신뢰로 가득 차서 새로운 날의 서광을 기다립니다. 교회의 전초에서 일하는 모든 이들은 하느님의 도시의 장벽 위에서 서 있는 보초들과도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에게 묻습니다. "보초들이여, 밤이 이제 얼마나 남았는가?" 그리고 우리는 즉시 대답을 듣습니다. "들어라, 저 소리, 보초의 외치는 소리, 시온으로 돌아오시는 야훼와 눈이 마주쳐 모두 함께 환성을 올리는구나." (이사 52,8) 땅의 모든 극변에서 드러나는 그들의 커다란 증거의 삶이, 하느님께서 다가오는 2000년대와 함께 사람들이 이미 어렵פות이 예감하는 하나의 위대한 그리스도교적 봄을 준비하시고 계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새벽 별이신 마리아님, 저희들이 새로운 열성으로 아버지의 구원 계획에 'FIAT' (당신 뜻이 이루어지소서) 을 반복하도록 도와주시어, 모든 민족과 모든 언어가 아버지의 영광을 뵈올 수 있게 하소서." (1999.5.23. 교황님의 서한)

(편집자주 : <http://home.megapass.net>에 실린 파티마 성모 발현 관련 기사들을 중심으로 재편집한 것임을 밝혀둡니다.)

평화의 모후 선교회 후원 안내

예금주 / Queen of Peace Missionary
 은행 : Wachovia Bank 계좌번호 : 2000012394184
 송금번호 : ABA# 031201467
 문의처 : 평화의 모후 선교회 610-366-9612
 E-mail : qpmm.org@gmail.com

크레딧 카드 후원 :
 홈 페이지 www.qpmm.org의 'Donation' 난으로 들어가시면 자세한 안내가 나옵니다.

예금주 / 평화의 모후 선교회
 자동이체 후원 : 신한은행
 계좌번호 : 100-021-159808
 연락처 : 권 레지나 010-3654-3521
 박안젤라 019-252-1387
 노마리노 010-7310-9678
 E-mail : qpmmkr@gmail.com



교도소에 성모님께서 발현하셨습니까?

샤브리나 꼬비치 / 남기옥 마르타 역

질문 : 교도소에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지요?

요조신부 : 공장에서 페르도 신부님을 만났는데, 얼마나 반가운지 서로 얼싸 안았어요. 너무나 기뻐합니다! 교도관 중에 요보라는 사람이 우리를 보고 소리치르고 욕을 해대면서 위협을 하는 거예요. 나와 같이 있던 뮤조 라고 하는 회교도 수인이 제게 "저놈을 지금 죽여버릴께!" 하더군요. 진짜 농담이 아니었어요. 그는 교도관 요보가 늘 나를 못 살게 하고 괴롭히며 위험한 일을 시키고 결국은 사고로 죽게 하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제가 불의하게 희생양이 된 것을 느꼈던 것이지요.

질문 : 신부님을 보호하려는 것이 정말 아름답네요. 그곳에서 세례를 주신 적이 있으신지요?

요조신부 : 네. 고해성사도 주었습니다. 교도소 생활에 대해서 오랫동안 말 할 수 있을 만큼 그 세계는 아주 특이합니다. 그곳에서 절망한 사람들, 욕구불만에 빠지고 희망을 잃은 사람들을 보았어요. 자신들의 욕구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사람들, 살인자, 성폭력범등 불행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그들 마음 안에 양심, 책임감, 회한 등을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장례식에 가려고 오스트리아에서 집으로 돌아오다가 체포당한 사람이 기억납니다.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저는 이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질문 : 교도소에서 더 극한 일이 전개될 수도 있나요?

요조신부 : 당연합니다! 다시 재판관을 받아야 할 수도 있

고 몇몇 정치범들은 다른 재판에 끌려가곤 했어요. "어떤 수감인이 말하기를 당신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라..." 하지만 저는 지혜롭게 이런 대화에서 빠질 수 있었고, 오로지 신앙에 대해서만 말했습니다. 공산당 서기였던 Jlija라는 동방정교 신자가 교도소에 들어왔어요. 그의 삼촌은 자신이 속해 있는 공산당 기관의 최고 지도자로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Jlija가 수감된 이유는 세르비인들과 지배권에 대한 언급을 했기 때문이었어요. 교도소에서 그는 예수님과 하느님의 말씀인 복음과 성프란치스코 성인에 대해 듣고 무척 놀랐습니다. 출옥한 뒤, 그는 아토스 산으로 수도 생활을 떠났습니다. 지금은 그리스의 굉장히 유명한 동방정교회 수도회의 은수자로 살고 있습니다.

질문 : 신부님, 교도소에서 성모님께서 발현하셨는지요?

요조신부 : 네, 맞습니다. 교도소는 저에게 믿지 못할 놀라운 경험의 연속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육체적으로는 고통스러웠지만 영적으로는 행복하고 평화로운 믿음이 저를 지켜주었습니다. 신앙은 마치 늪지대에 빠지지 않고 깨끗한 모습으로 건널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다리역할을 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 곳에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고 많은 이들을 예수님께 이끌 수 있었지요. 반면에 또한 그곳은 큰 고통 속에서 갈 곳조차 없는 진흙 구덩이였습니다. 그곳에 있는 수 천명의 죄수들 속에서 저는 많은 박해를 받아야 했습니다. 교도관들이 수감자들을 악용해서 거짓말을 하며 저를 골탕먹이려던 계획들은 매 번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감자들이 오히려 교도관들의

거짓말을 폭로했기 때문이지요. 정말 그 사람들은 내가 빨리 죽지 않아서 안달이었다니까요! (웃음)

질문 : 동정녀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요조신부 : 성모님이 감옥에서 어떻게 발현하셨는지에 대한 설명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자세한 언급을 피하셨다.)

질문 : 신부님이 독방에서 기도하고 계실 때 성모님의 현존하심을 느끼셨는지...

요조신부 : 제 독방은 작지도 침울하지도 않았어요! 저의 기도와 눈물이 있었던 그 곳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만이 침울하고 우울합니다. 그 외 것은 모든 것이 아름답습니다.

질문 : 그동안 발현 증인들, 혹은 신부님들과 가족들이 면회를 할 수 있었나요?

요조신부 : 규율이 엄해서 직계가족 외에는 아무도 면회가 안됐습니다. 교도소 소장은 큰 형님이 직계가족 명단에 없다는 이유로 면회를 거절했을 정도였으니까요. 가족들이 호적등본을 보여 주었지만 결국 만나지 못했습니다. 면회는 한번에 5~6명씩 하고 나머지는 밖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제가 면회실에 가기 전 먼저 네 번에 걸친 몸검사를 합니다. 예를 들면 혀 밑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네 번에 걸쳐서 입을 벌여야 했습니다. 네 번에 걸쳐 신발을 벗어야 했고, 네 번에 걸쳐 완전히 나체가 되어야 했습니다. 면회실에는 네 명의 교도관들이 있는데, 한 명은 문 근처에 다른 한 명은 제 뒤에, 또 다른 한 명은 제 가족 뒤에, 또 다른 한 명은 저와 제 가족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그나마 아버지는 돌아가셔서 오시지 못했지만...

질문 : 신부님께서 장례미사에 참여하셨나요?

요조신부 : 교도소생활이 일 년이나 더 남아 있었습니다 1982년 2월 20일 아버지께서 돌아가시자 민심이 중요했던 정치가들은 강제로 70개 항에 싸인을 시켰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던 경찰을 따라 모스타르에 도착해서 장례식에 갈 때 그들은 제가 입고 있던 죄수복을 벗기고 넥타이와 양복을 입도록 종용했습니다. 프란치스코회 사제인 저에게 수도복을 입지 못하게 하고 아버지의 장례미사도 집전하지 못하게 했지요! 사제인 제가 그런 모습으로는 “절대로 가지 않겠다!” 고 강하게 저항했지만 그들은 강제로 저를 끌

고 갔습니다. 그렇게 비극적인 모습으로 아버지의 장례식에 갔지만 아들인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바라보는 것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고 슬퍼하는 가족들에게 단 한마디의 위로조차 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에야 비로소 아버지의 묘소에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질문 : 어떤 이유로 감형을 받으셨나요?

요조신부 : 모스타르 법원에서 3년 6개월의 형을 받았는데 사라예보에서는 2년, 벨그라드에서 1년 6개월로 감형되었습니다. 공상당들은 저를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광고를 길거리에 할 정도였으니까요! 반면에 정치적인 조작이라고 재판관을 기각시켜야 한다는 소리도 높았습니다.

질문 : 신부님의 변호사는 어떤분이셨나요?

요조신부 : 저희 큰형님과 잘 알고 지내던 밀란 부고비치 변호사는 휴가 중에 저에 대한 보고서를 읽고 부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내가 맡아야겠어!” 그 변호사는 단 한 푼도 받지 않고 저를 위해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질문 : 신부님들이나 발현 증인들이 보낸 편지들을 가족들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었는지요?

요조신부 : 우편물 수취는 금지되었고, 오직 소포만 받았습니니다. 그나마 소포가 오면 경찰이 뜯어서 과자 봉지나 나라도 살살이 조사하는 동안 저는 창살 너머로 그 과정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메주고리에에서 오는 편지들을 전해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M**





어느 날 우리는 켈커타의 거리에서 젊은이 하나를 우리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는 좋은 교육을 받았고 학위도 여러 개 가진 사람이었는데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다 잘못되었고 신분증조차 도난당했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 나는 그에게 왜 가출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자기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고 말하며,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는 나를 한번도 똑바로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시기하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집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수녀들은 우선 그 젊은이를 위하여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를 용서해 주도록 도와 주었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 모두에게 좋은 일이었습니다.

얼마 전, 어떤 큰 부자가 우리 수녀원에 와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수녀님이나 다른 누구라도 좋으니 제발 우리 집에 좀 와 주십시오. 저는 이제 반 장님이 되었고 제 아내는 정신병자가 될 지경입니다. 자식들이 모두 외국에 가 살아서 우리 외로워 죽겠습니다. 정말이지 누군가의 따 한 목소리가 듣고 싶어 못 견디겠습니다!" 이 두 경우 모두가 극심한 가난의 이야기입니다. 하느님은 배고픈 사람과 병든 사람, 헐벗은 사람, 집 없는 사람과 하나가 되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옷이 없어서 헐벗은 사람들도 있지만, 낯선 사람에게 좀처럼 베풀지 않는 그 연민의 부족으로 헐벗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보금자리가 될 집이 없는 사람도 있지만, 식구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 우리의 외로움, 우리의 고통, 우리의 죽음에 함께하심으로써, 우리를 도우려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셔야만 했습니다. 우리도 그분과 똑같이 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모든 고통에서, 물질적 결핍뿐 아니라 영신적 빈곤에서 구원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고통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들과 하나가 되어야만 그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이란 하느님이 그들의 삶에 들어오시게 하고 또 그들을 하느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불안했을 때에 주님은 내 고통을 가라앉혀 주셨습니다.

내가 지쳐 있을 때에 주님은 나를 쉬게 하셨습니다.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주님은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병들어 누워 있을 때에 주님은 나를 간호해 주셨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 주님은 내게 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낯선 땅에 있을 때에 주님은 나를 친절하게 맞아 주셨습니다.

내게 집이 없었을 때에 주님은 내게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내가 실업자가 되었을 때에 주님은 나에게 일자리를 주셨습니다.

내가 전쟁터에서 부상 당했을 때에 주님은 내 상처를 싸매 주셨습니다.

내가 친절을 찾았을 때에 주님은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내가 흑인, 황인, 혹은 백인이기 때문에 욕먹고 조롱당했을 때에 주님은 내 모욕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내가 늙었을 때에 주님은 내게 웃어 주셨습니다.

내가 근심에 싸여 있을 때에 주님은 나와 함께 고민 하셨습니다.

나를 사람들이 비웃었을 때에 주님은 내 곁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행복했을 때에 주님은 나와 함께 기뻐하셨습니다.

사랑을 나누며

마더 데레사 수녀

'샘에서 생기를' 에서 발췌



"내가 교황이 아니었다면, 나는 벌써 메주고리예에 가 있을 것이다."

-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

* 교회의 위대한 인물 중의 한 분인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는 메주고리예를 믿는다는 말을 여러번 하셨다. 토마섹(Tomasek) 추기경은 교황이 함께 계시는 자리에서 그 분이 하신 말을 공개했다. "만약 그분이 교황이 아니었다면 그분은 순례자들과 함께 메주고리예에서 일을 돕기 위해 그곳에 가고 싶어 하셨을 것입니다." 교황은 많은 신부들과 주교들에게 그곳을 방문하도록 장려했다.

* 교황은 목격증인 미리야나와 그 외의 목격증인들도 만났다. 미리야나가 로마를 처음 방문했을 때, 교황은 그녀와 개인적으로 만나 20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미리야나는 교황과의 면담에서 나눈 이야기 중 다음 말을 제외하고는 당분간 아무것도 밝히지 않겠다고 했다. "만약 내가 교황이 아니었다면, 나는 벌써 메주고리예에 가 있을 것이다." 교황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 중 몇 가지를 여기에 적어본다. 그것들은 직접 교황님으로부터 또는 인용한 증인들로부터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메주고리예의 성모님께서
미국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 1993년 미국에서는 메주고리예 성모님의 부르심에 감화를 받고 100개 이상의 회합이 열렸으며, 그 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니콜라스 - 디안토니오 (Nicholas D'Antonio) 주교는 1991년 노틀담 대학에서 열린 전국 메주고리예 평화대회 개최사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우리는 이 세상 어느 곳보다 메주고리예로 인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을 봅니다. 나는 역사상 메주고리예 사건과 비교할만한 것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1994년 노틀담 대학에서 개최된 전국 메주고리예 대회 강연에서 호닐리카 주교는 메주고리예로 떠나는 한 미국인 순례그룹에게 교황님의 말씀을 인용했다. "메주고리예의 성모님께서 미국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 메주고리예를 찾는 성직자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것은 순례자들에게 영적 도움을 주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이 복되신 동정녀 학교에 등록하기 위해서이다. 그들은 하루 종일 긴 시간을 고해실에서 보내면서 깜짝 놀랄만한 체험을 자주 한다. 많은 사제들은 고해소에서 나오면서 "내 평생 성직자로서 이런 고해성사는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증언을 하고 있다.

*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손꼽히는 한스 - 우르스 - 본 - 발타사르 (Hans Urs von Baltasar) 추기경이 1985년 11월 리차드 - 폴리 (Richard Folex) 신부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증언했다. "메주고리예 신학설에는 진실의

중이 올리고 있습니다. 나는 그 진실성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메주고리에 대한 모든 것은 가톨릭교의 관점에서 볼 때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너무도 명백하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본 - 발타사르 추기경은 목격증인 마리아를 독일에서 만났다. 추기경으로 임명되기 전에 그는 잡지에서 이렇게 진술했다. "메주고리에는 단지 하나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그곳을 모르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일이지요!"

"메주고리에는 파티마의 완성이며 연속입니다."



* 1989년 8월 1일 흐닐리카 주교에게 "오늘날 세상은 초자연적인 현상을 잃고 말았지요.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메주고리에서 기도와 단식 그리고 고해성사를 통하여 그것을 찾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1984년 3월에는 "메주고리에는 파티마의 완성이며 연속입니다."라고 하셨다.

* 한국주교회의의 의장 김 안젤로 대주교는 요한 바오로 2세와의 대화를 1990년 11월 11일호 [한국 가톨릭] 주간지에 실었다. "성하덕분으로 폴란드가 이제 공산주의에서 해방되었음을 축하드립니다." 이에 대해 교황은 "아니요,

제가 한 것이 아니라 복되신 동정녀께서 파티마와 메주고리에서 그렇게 된다고 단언하셨으므로 그분의 노력 덕분이지요." 라고 대답하셨다.

* 교황님과 광주 대주교와의 대화가 1991년 2월 3일호 (L' Homme Nouveau) 지에 실렸다. "한국의 나주라는 도시에 한 성모상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라는 주교의 말에 교황은 이렇게 대답했다. "그런데 그런 현상을 메주고리에 처럼 받아들여야 하지 않는 주교들이 더러 있지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반응과 많은 사람들이 회개한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복음과 부합되고 있지요. 이러한 사실 모두를 신중히 연구해야 합니다."

* 미국 텍사스 주 샌안토니오의 패트릭-플로레스(Patrick Flores) 대주교는 1989년 8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교황님을 만났을 때, 나는 그분에게 여쭙봤습니다. 메주고리로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교황님은 "가도록 그냥 두십시오. 그들은 기도하기 위해 그곳에 갑니다. 당신도 그곳에 가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때로는 사람들이 주교들을 따라가고, 때로는 주교들이 사람들을 따라가기도 합니다." (Message de Paix Montreal, 11/12/89)

메주고리예를 지켜주십시오!

* 목격증인들의 교구 본당 사제인 요조 조브코 신부가 1992년 6월 17일 로마를 방문했을 때, 교황이 요조 신부에게 "나는 당신에게 강복을 빕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메주고리에 마을 사람들에게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고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메주고리예를 지켜주십시오!" 하고 말했다.

* 프랑스 빠리냥(Perpignan)의 장-샤베프(Jean Chabbert)주교는 이렇게 말한다. "오늘날 심각한 문제에 빠져있는 세계를 구하는데 있어서 메주고리예는 실제적인 해답을 줍니다. 나는 교황님이 발현의 신빙성을 정말 확신하고 있다는 것을 틀림없이 압니다." (Naas Ognjista, 1994년 11월)

* 1994년 가을, 평화의 센터 봉사자들은 메주고리예의 슬라브코 신부가 1995년 1, 2월 동안 남미에서 사도적 순회 강연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때 파라과이 아



순시온 지역의 대주교 펠리페-산티아고-베니테즈 (Felipe Santiago Benitez) 몬시뇰은 망설이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는 교회에서 메주고리에 관한 모임을

허락해 주어야 하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슬라브코 신부 소속인 프란치스코회 대주교와 모스타의 주교에게 슬라브코 신부에 관한 추천서를 요구했다. 1994년 11월 마침 그가 로마에 있었을 때, 메주고리에서 온 신부와 함께 메주고리를 주제로 하는 그와 같은 모임을 인정해 주는 것이 적합한지 아닌지를 교황에게 여쭙어보았다. 교황은 그에게 "메주고리에 관련된 것이라면 모두 인정해 주시오!" 그제야 베니테즈 대주교는 다른 아무런 추천서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교황 스스로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대주교는 평화센터를 불러 슬라브코 신부의 순회 강연을 허락해 주었다.

* 교황께서 "메주고리에 관련된 것이라면 모두 인정해 주시오." 라고 말씀하신 소식은 남미 전역에 불붙듯이 퍼져 나갔다. 그 결과 슬라브코 신부는 남미 8개국을 순회하면서 강연을 했다. 그들은 여러 성당과 주교좌 성당의 문을 활짝 열고 메주고리에의 메시지를 받아들였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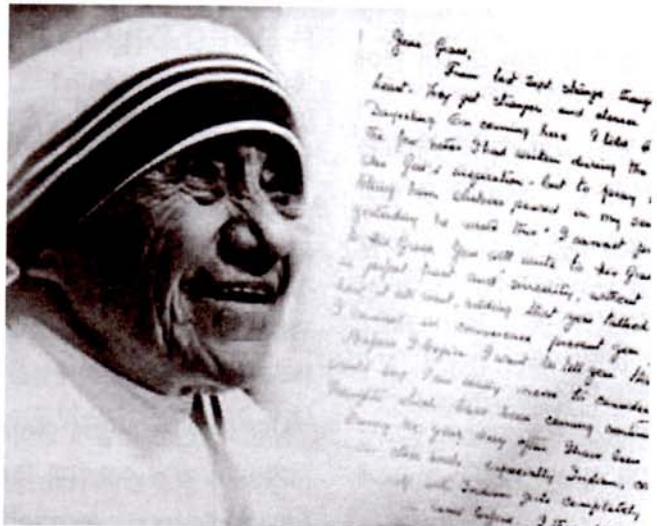
*교황께서 주교들과 성직자들에게 메주고리에 가서 기도하라는 격려의 말씀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더욱이 교황은 [메주고리에 메아리]라는 잡지를 통하여 마을 소식은 물론이요 메주고리에 성모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매달 읽어보신다.

*1992년 4월, 메주고리에 Gebetsaktion 신문에 발표된 인터뷰에서 크로아티아의 수석 대주교 프란요 쿠하리치 추기경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았다. "당신은 우리가 메주고리에서 발현하시는 평화의 모후로부터 오는 그 평화의 목소리를, 즉 그 부르심을 소홀히 해왔다는 것을 인정하시나요? 그리고 만약 하느님의 어머니께서 오신다는 것을 교회가 인정했다라면, 아마도 우리는 훨씬 더 풍성한 은총을 받았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 추기경은 "그것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지요." 라고 대답했다.

메주고리에 성모님께 감사드립니다.

- 마더 데레사의 편지 -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위대한 증언자들 중의 한분인 마더 데레사가 메주고리를 방문하는 순례자들에게 호소하는 내용을 들어봅시다. "메주고리로 가는 모든 분들에게 부탁해 주십시오. 메주고리에의 성모님께 에이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해 달라고요. 나는 메주고리에 성모님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요. 이때에 우리를 이 길로 인도해주시는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1992년 4월 8일, 마더 데레사는 데니스 놀란에게 자필로 쓴 편지를 보냈다. "우리 모두는 미사를 드리기 전에 메주고리에 성모님께 성모송을 한번씩 바치고 있습니다."

(1991년 8월 12일 그녀는 메주고리에의 신빙성을 거부하는 비난들을 막기 위해 메주고리에 관한 그녀의 편지를 출판해도 좋다는 허락을 놀란에게 서면으로 주었다. "나는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영혼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하여 당신에게 내 말을 인용해도 좋다는 승낙을 해 드립니다.") M

우주의 여왕 (10)

성모님의 발현이 마지막이라는 것이 사실입니까?

발현목격증인 이반카 - 3 -

저자 : 잔 코넬 (Jan Connell)
신경남 스테파노 움김
(평화의 모후 선교회 지도신부, 카푸친 작은 형제회)



질문 : 이반카, 지상에서의 성모님 발현이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게 사실입니까?

이반카 : 네, 사실입니다.

질문 : 당신은 복되신 성모님의 발현 기념일에 매년 그분을 뵈고 있습니다. 1988년 6월 25일 성모님 발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이반카 : 네. 그날 복되신 성모님께서는 매우 아름다우셨습니다. 성모님께서는 가장자리가 금빛으로 장식된 드레스를 입고 계셨고, 베일을 쓰고 계셨습니다. 그날 성모님께서는 제게 특히 3번째와 4번째 비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질문 : 그 비밀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이반카 : 아니오.

질문 : 그 비밀들에는 우리를 두렵게 할 만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이반카 : 그렇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내용이 없습니다.

질문 : 1989년 6월 25일 발현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반카 : 네. 성모님과 저는 5번째와 6번째 비밀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질문 : 성모님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이반카 : 성모님은 매우 아름다우셨습니다. 그날도 성모님께서는 가장자리가 금으로 장식된 의상과 베일을 쓰고 계셨습니다.

질문 : 성모님께서 또 다른 것에 대해 말씀하십니까?

이반카 : 성모님께서는 우리가 좀 더 많이 기도하기를 원하

십니다. 우리 삶을 지배하고 싶어하는 사탄은 우리를 지배하기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든지 하고 있고, 또한 우리의 물질적 삶 속에서 자신에게 이로운 모든 것들을 이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단식하길 원하십니다. 어머니께서는 당신 아드님께 우리를 위해 전구하고 계십니다.

질문 : 성모님께서 다른 것도 말씀해 주셨습니까?

이반카 : 성모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의 메시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기도와 단식 말입니다.

질문 : 우리는 왜 단식해야 합니까?

이반카 : 보다 더 큰 자유를 누리기 위해 우리는 단식해야 합니다. 단식은 우리를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해 줄 것입니다. 성모님께서는 기도와 단식은 전쟁마저도 멈추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질문 : 앞으로 전쟁이 일어납니까?

이반카 : 기도와 단식은 전쟁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질문 : 단식이 어떻게 보다 큰 자유를 주게 됩니까?

이반카 : 우리가 늘 필요로 하고 원하는 것들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때, 단식은 우리로 하여금 하느님과 성모님, 그리고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게 합니다.

질문 : 당신은 어떻게 단식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반카 : 저는 수요일과 금요일에 빵과 물로 단식을 합니다.

질문 : 사순 시기 동안에는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반카 : 저의 친척들이 700년 동안 그래왔듯이 저는 사순절 40일 동안 빵과 물로 단식하며 지냅니다. 성모님께서 제

더 큰 자유를 누리기 위해 우리는 단식해야 합니다.

게 단식이 세상의 전쟁을 막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단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 삶의 야기가 아니라 세상의 미래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질문 : 세상의 미래와 관련해 당신이 알고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이반카 : 그것은 제겐 커다란 부담입니다. 성모님께서 요청하신대로 기도하고 단식해야만 한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질문 : 그렇게 커다란 중압감을 어떻게 다스리고 있습니까?

이반카 : 그냥 단순하게 앞으로 밀고 나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항상 그러한 중압감에 대해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부담감에 대해 생각할 때면, 저는 더 기도하고 단식하려고 노력합니다.

질문 : 기도하고 단식할 때, 평화를 느끼십니까?

이반카 : 네, 그렇습니다. 성모님께서 제게 나쁜 일에 생각을 집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하느님께 집중하고, 하느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과 우리를 위해 하늘에서 계획하신 미래에 대해 집중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질문 : 우리가 의무적으로 성지 순례를 해야 하나요?

이반카 : 아니오, 전혀 아닙니다. 성모님께서 세계 각지

에서 사람들이 이곳으로 몰려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모님께서 우리가 환영 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환영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모님께서 당신과 성 요셉께서 베들레헴에 가셨을 때, 그리고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그들을 위한 방조차 없었던 것을 상기하라 하셨습니다. 순례자들이 이곳을 방문할 때면 우리는 늘 행복합니다. 그들이 하느님과 성모님을 무척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순례자들은 자유를 찾아 이곳에 옵니다. 또한 믿음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느님을 찾아 이곳에 옵니다.

질문 : 이반카, 아주 힘들고 지칠 때나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양의 일 보다 더 많은 일을 해야 할 때 당신은 무엇을 합니까?

이반카 : 저는 늘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느끼지는 않습니다. 기도할 때 저는 보다 큰 평화를 느낍니다.

질문 : 당신이 좋아하는 기도 장소는 어디입니까?

이반카 : 미사 때입니다. 미사는 제 삶의 중심입니다.

질문 : 왜 그렇죠?

이반카 : 성모님께서 미사의 가치를 가르쳐주셨기 때문입니다. **M**

성모님께 드리는 편지


성모님께 드리는 편지를 선교회로 보내주시면 중재 기도의 사명을 받은 발현 목격자 비스카에게 전달하여 성모님의 발현때 축복을 청해드립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기도지향**을 위하여 선교회의 지도신부님께서 미사를 봉헌해드립니다.

보내 실곳 :

Queen of Peace Missionary (미국)
P.O Box 230 Albrightsville, PA 18210-0230
Tel: 610-366-9612 Fax 610-366-9614
e-mail: qpmm.org@gmail.com

평화의 모후 선교회 (한국)
서울 동작구 사당1동 1031-29 한양빌딩 B 1
Tel. 02-2281-3236 / Fax. 02-2281-3246
e-mail: qpmmkr@gmail.com



메주고리에의 성모님이 당신을 부르십니다.

저는 2001년 12월말에 메주고리에 순례를 다녀온 사람입니다. 저의 순례는 철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무 준비와 생각 없이 거역할 수 없는 흐름에 밀려 메주고리를 갔습니다. 메주고리에에서는 또 어쩔 수 없이 순례에 동참하였으나,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지금 메주고리를 생각하면 저는 너무 부끄럽고 또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도 그리고 지금도 저는 넘치는 은총을 받고 또 받았습니다. 메주고리를 가게 되었을 때 저는 이제 막 영세한지 1년 8개월째인 신참내기 초보 신자였습니다. 부끄럽지만 아직도 저는 교회 전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가끔은 미사 중에 모르는 단어가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처음에 영세를 받게 된 것은 저의 환자 중에 예비자 수녀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영세를 받기 일주일 전에 저의 대모님을 차로 그분 댁에 모셔다 드릴 일이 있었는데 그때가 새벽 2시경 이었습니다. 대모님 댁은 비닐하우스 판자촌에 있었는데 제가 그분을 모셔다 드리다가, 제 차바퀴가 길가의 한 웅덩이에 빠져서 꼼짝달싹도 못할 형편이 되었습니다. 시간은 새벽 2시쯤이고 시골 한복판에 아무도 없고 어쩔 수 없이 사고 신고를 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대모님은 사람을 구해 오겠다고 저를 차 안에 혼자 두고

어딘가로 사라졌습니다. 깜깜한 밤에 혼자 차 안에서 대모님을 기다리면서, 저는 이상하게도 마음에 동요가 되지 않고 '하느님, 당신이 정말 계시면 저를 이 상황에서 구해 주십시오. 그러면 영세를 받겠습니다.' 라는 어처구니없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세를 받지 않으려고 생각하면서, 하느님이 실제로 계시다고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그러한 생각이 나도 모르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약속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30-40분 후 대모님이 어떤 남자분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집에 무사히 돌아왔는데 차에는 아무런 사고 흔적도 없이 깨끗하였습니다. 하느님을 살아 계신 분으로 믿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차마 내가 한 약속을 저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대희년에 저는 '*****' 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영세를 받고 나서 저는 알아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영세를 받고 9일 기도를 계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모님께로 향한 신심보다는, 살아가는 동안 수행을 할 것이라고 내가 스스로 한 약속 때문에 열심히 시간을 내서 묵주기도 5단을 바치고 그 다음에는 저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묵상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몹시도 그때가 그리운데 저는 그 시간에 예수님도 뵈고 성모

시간이 지나면 당신을 위한 성모님의 사랑 가득한 계획을 알게 될 것이고 당신은 변화될 것입니다.

님도 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저는 어리둥절하고 당황하고 또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저는 영세는 받았지만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닌데, 내가 9일 기도를 매일 바치지만 진짜로 성모님을 믿는 것은 아닌데, 나에게 나타나는 변화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리석어 보여서 예수님께 '발목 잡혔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더 힘들었습니다. 그나마도 세상에서 '헛똑똑이'라는 소리를 듣는데 예수님을 믿으니 정말로 바보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도망가고 싶어 죽겠는데 미사를 드리고 성체를 영한 후 조배를 하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예수님, 사랑합니다.'라는 소리가 튀어나와 저는 스스로 까무라치게 놀라 도리질 쳤습니다. "어머, 보이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니... 내가 미쳤나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직업이 의사인지라 환자를 치료하는데 제 능력의 한계를 깨달았고, 또 사람이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므로 어떻게든 낫게 해주고 싶은데, 저는 너무 힘이 부족하니 저보다 위대한 힘에 매달렸습니다. 그 절대적인 에너지는 하느님이었습니다. 그렇게 정말로 열심히 하느님께 우리 환자들을 위하여 기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느님은 아니었습니다. 나와는 상관없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당신 뜻대로 모든 일을 결정하시는 하느님이었습니다.

저는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고 또 그것 때문에 삶을 살면서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은 사람입니다. 또 저를 이렇게 만드신 하느님을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게 교만한 생각이지만 하느님을 용서하기 싫었습니다.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해야 하는데 저는 제가 싫었습니다. 내가 나와 화해하기 싫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 화가 났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미사에 참석하였지만, 제가 믿는 천주교는 철학적이고 진리의 학문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는, '하느님은 살아 계시다.'고 그러지만 나에게에는 멀리 있는 분이었고, 그분께 기도를 드리지만 나를 위한 내 기도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세상사라는 것이 내 뜻대로 될 것이 아니고, 하느님 뜻대로 될 것이므로 '당신 뜻대로 하시라고' 기도했습니다. 어차피 내 뜻대로 될 것이 아니라면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당신 맘대로 하시되 나를 죽이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는데, 그저 그 죽음이 어리석게만 보이고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모님은 나와 같은 인간인데 그 기막힌 고통을 감내하신 것이 마음이 너무 아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여, 기뻐하소서. 주님과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라고 기도할 때는, 무엇이 기쁜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고 그저 같은 인간으로 성모님의 찢어지는 고통이 느껴져서 마음으로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모님의 인간적인 고통을 생각하고 의지하며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2001년 연말에 메주고리예를 순례하게 된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11월에 본당에서 주최하는 성령 세미나가 끝난 후 우연찮게 멀리 강원도에 계시는 신부님이 저의 환자로 오셨습니다. 신부님이 12월말에 열흘 정도 휴가를 낼 수 있겠냐고 말씀하시면서, 메주고리예 순례를 권유하셨을 때 저는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성모님의 계획은 부드럽지만 한편으로는 강인하셔서, 저는 12월 15일에 다니던 병원을 강압에 의해 그만두는 일이 생겼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없는 일을 당하게 된 까닭에 저는 계속해서



저의 친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내가 하느님을 믿고 있는데 지금 나에게 벌어지고 있는 이 일이,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 맞냐?" 고 묻고 또 물었습니다. 친구는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이 맞다고,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그분이 하시는 일이 맞다고 말해주었지만, 저는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을 그만두고 나니 '어... 이거, 메주고리예를 가라는 뜻인가 보네...'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선뜻 마음이 동하지 않아서 망설이다가 아마 26일쯤인가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자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저를 위한 자리는 비어 있었고, 그렇게 메주고리예 순례가 시작되었습니다.

출발 전날 비행 시간표를 받고 '메주고리예' 라는 곳까지 직접 한번에 가는 줄 알고 있었는데, 비행기를 4번인가 갈아타고 나중에는 버스를 타고 들어간다는 사실에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취소시키기에는 너무 늦었고 어쩔 수 없이 고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공항에서 낯선 사람들을 만나고 순례가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지도 신부님이 비행기 트랩을 밟으면서 한마디 툭 던지고 가셨습니다. "신앙이 뭔지 알니까? 그거 하느님과 노는 거예요." '젊은 신부님이 멋지네.' 생각했습니다. 신앙을 간단 명료하게 한마디로 아주 멋지게 정의하셨고 제 가슴에 남았습니다. 홍콩 공항에서 다음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사람들은 모여서 목주기도 15단을 바쳤습니다. 목주기도 5단까지는 익숙한 터라 잘 따라갔는데 15단을 한꺼번에 하라니... 나중에는 몸이 꼬이고 쯤이 쑤셨습니다. 그리고 '큰일났다.' 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신자인가 보다.' 나와는 어울리

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되돌아가고 싶어 죽겠는데 되돌아 갈 용기는 없고, 슬슬 이 순례에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 순례에 왜 따라가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한 회장님을 만났을 때, '메주고리예' 에 성모님이 발현하신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그리고 메주고리예의 기적에 대하여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아무런 감흥도 일지 않았습니다. '뭐... 기적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기적이란 보이는 사람에게는 보이고 또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이니까. 그러나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왜 내가 이 고행을 하면서 나와는 차원이 다른 이런 사람들 속에 끼어서 그곳을 가야 하는지...' 몸은 힘들고 마음은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크로아티아로 넘어가는 버스 속에서 내내 졸다가 드디어 야고보 성당에 도착하였습니다. 새벽 2시가 넘는 시간으로 기억하는데 야고보 성당 마당에 있는 메주고리예 성모님께 인사 드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새벽 공기에 아슬라히 성모님이 서 계시는데, 성모님이 너무 예뻐서 그리고 뜨거운 눈물이 나도 모르게 흘러서 괜시리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메주고리예 순례는 시작되었습니다. 성모님 발현산에 올라가는데 너무 경사진 돌산이라 저보고도 올라가라고 해서 기가 막혔습니다. 추운 겨울 날씨인데도 사람들이 신발을 벗고 맨발로 올라가는데 저는 이 사람들이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낮은 야산도 올라가 본 적이 없는데 저보고 이 위험한 곳을 올라가라니... 여기까지 와서 혼자만 안 올라가겠다고 말할 용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친구의 손에 의지하며 올라갔습니다. 내가 여기를 왜 올라가야 하는지 너무 화가 나서 정상에 올라가 회장님이 성모상께 입맞추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화가 나서 소리지르고 싶었습니다. 바윗돌에 걸리고 진흙에 빠져서 넘어지고 다리가 후들거리고 팔이 후들거리서 쓰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울었습니다. 화가 나서 울었습니다. 내가 이곳에 있어야 하는 이유를 도무지 알 수가 없어서 또 울었습니다. 정상까지는 겨우겨우 기어왔는데 어떻게 내려가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 뜻대로 하소서.

야 하는지 막막해서 울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해서 또 울었습니다. 야고보 성당에서의 미사는 참으로 장관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서 있기도 힘이 들었습니다. 성모님 발현시간에 사람들은 조용해지고 모두들 성모님의 발현을 느끼는지 숙연해지는데, 저는 다리가 아파서 서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성모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왜 이번 곳까지 와서 이 고생을 해야 하는지... 몸이 너무 힘들고 다리가 너무 아파서 또 울고 싶었습니다. 순례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메주고리예로의 순례는, '특별한 부르심' 이고 '특별한 은총' 이라고 말했을 때 저는 아무런 느낌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제 영세한지 2년이 되어가는 신참내기 신자라고 말했을 때 다들 놀라워하며, 성모님의 특별한 사랑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저 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지금은 기억이 흐릿하지만 '스벳토잘' 신부님, '요조' 신부님, '평화의 오아시스' 에서 만난 신부님, '체나콜로' 의 엘비라 수녀님... 그분들의 신앙과 영성에 머리가 숙여지며 감동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예수님과 성모님의 뜻에 맞추어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감동하며 가슴 깊숙히 그 말씀들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주님' 은 아니었습니다. 성모님이 '나의 엄마' 는 아니었습니다.

십자가 산을 오르는데 발현산보다 경사가 더 심하다고, 그래서 겁이 덜컥 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들어서 그 십자가를 끌고 예수님처럼 그 산을 올라가야 한다고 그럽니다. 놀랐습니다. 그리고 14처를 돌면서 기도할 것이라고 합니다.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나는 14처가 뭔지도 모르는데... 십자가 산을 올라가는 아침에 사람들이 버스에 올라타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여서, 저는 '이 사람들이 미쳤나...'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산 아래에도 계시고 또 산 위에도 계시는데, 왜 이 고생을 사서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부님 손에 끌려서 또 한 손은 다른 이의 손에 끌려서 거의 기어올라갔습니다. 1처, 2처... 올라가면서 사람들은 기도하고 울고 내내 예수님과 자신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듯했지만, 저는 예수님께 화가 나서 각 처에 도착해서 잠깐 쉴 수 있을 때조차도 십자가를 보지 않고 뒤돌아 앉아 있었습니다. 태어나서 생전 처음으로 그 험한 산을 올라가면서 저는 제 생각만 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것을 왜 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또 이해하고 싶지도 않지만 예수님, 당신께서 하라시

니 제가 하겠습니다. 예, 예수님, 누가 이기나 보자구요...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영세 받고 처음부터 '내 뜻이 아니라 당신 뜻대로 하리라' 고 제가 기도했으니, 그 약속대로 당신께서 하라시니 제가 합니다. 그러나 제게 이렇게 하시는 당신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 화내면서 오기와 자존심으로 끝까지 드디어 예수님 부활의 15처에 올라왔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이겼습니다. 당신께서 시험을 제게 주셨는데 제가 이겼습니다. 제가 이겼으니 저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신부님께서 저의 등을 툭 치시며 산 아래 하늘과 구름과 조그마한 집들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신비로운 자연이 제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십자가 산을 내려와 조그만 수녀원으로 미사를 드리러 갔는데 그때까지도 저는 제가 예수님을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체를 영하러 제단 앞으로 걸어가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긴 것이 아니라 제가 진 것이라는 것을... 그 무엇을 해도 아무리 난리를 쳐도, 저는 그분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 뜻대로 하소서.' 다시 울었습니다.

순례 마지막 날, 미리야나 증인에게 성모님이 발현하시는 것을 모두 모여 지켜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저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성모님의 특별한 보살핌으로 맨 앞줄에 앉아 성모님의 발현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내 눈에도 성모님이 보일까?... 미리야나는 무엇을 보는 것일까?' 그녀의 얼굴을 무심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조용해지고 성모님이 나타나신 듯했습니다. 제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간 메주고리에 성모님은 특별히 기도를 잘 들어주신다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아, 이때 내 기도를 부탁드려야 하는 것이구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



데 그때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분이 내 엄마구나!!! 엄마는 나를 다 알지. 내가 말하지 않아도 엄마는 나를 다 알고 있지. 아... 이분이 내 엄마구나...' 아무런 기도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모님이 내 엄마인데 무엇을 따로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엄마가 거기 계시는데. 엄마는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하시는데... 울었습니다. 메주고리에에서 돌아오면서 내가 왜 이곳을 순례해야만 했는지, 예수님과 성모님이 나를 이 특별한 곳에 왜 부르셨는지, 이제는 그 이유를 따져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저 마음에 담아 두기로 하였습니다. 마치 성모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서울로 돌아와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 해결되지 않아서 기도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순례 전과 순례 후의 가장 큰 변화는 이제는 그분들께 조르는 기도를 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어차피 그분들의 뜻대로 될 수 밖에 없는 일이라고 포기하고 체념하였는데, 이제는 저의 개인적인 사정을 말씀드리고 어떻게든 해결해 주실 것을 조르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그분들의 자식입니다. 자식은 아버지에게 무엇을 해달라고 떼를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엄마에게 떼를 쓰고 가끔은 엄마에게 화내고 또 엄마에게 매달립니다. 순례 전에 친구가 예수님을 예전에 제가 남자 친구를 사귀듯이 사귀어 보라고 말했을 때,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저는 읍니다. 그 다정하고 부드러운 분을 느끼지만, 다른 애인들처럼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서 안타깝고 속이 상합니다. 우리 애인은 잘생기고 다정하고 똑똑하고 또 세상 사람 어느 누구보다 능력자인데, 단 한가지의 단점은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순례 전에는 성체 앞에서 조배를 드리다가, 내 안에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는 내면의 소리가 튀어나오면 소스라치게 놀라며 스스로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제 사랑이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몸과 마

음이,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랑이 되도록 제가 그렇게 당신을 사랑할 수 있도록 저를 만들어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순례 전에는 저의 불편한 다리가 부끄러운 일이었는데, 지금은 수많은 세상 사람들 속에서 하느님께서 '당신의 사람'으로 표시를 해 놓으신 일인 것 같아 자랑해야 하는 일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순례 전에도 순례 후에도 저는 부족한 저를 대신해 하느님께서 저에게 오는 환자들을 치료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처음에는 병고치는 능력을 저에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였지만, 지금은 그저 제가 우리 환자들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환자가 낫지 않으면 죽을 것처럼 괴로웠는데, 이제는 제가 더 많이 사랑해주지 않았음을 괴로워합니다. 예전에는 하느님이 미워서 그리고 어차피 당신 뜻대로 될 것이니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나를 포기하며 울며 죽을 것처럼 기도했는데, 지금은 하느님을 사랑하게 되어서 당신 뜻대로 하시라고 기도합니다. 예전에는 예수님께 '발목 잡혔다.' 라고 말했는데, 지금은 당신을 더 많이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 할 힘만 있으면, 기도의 끈만 놓지 않으면

저는 몹시 어리석고 완고한 사람이어서 행여 제 눈앞에서 예수님이 나타나 기적을 행하셔도, 저는 아마 보고 있는 제 눈을 의심할 사람입니다. 눈에 보여 주시고 손에 쥐어 주셔도, 저는 저 스스로를 의심할 사람입니다. 아무리 해도 저는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저는 그 보이지 않는 그분을 그리워하며 매일 새벽에 그분을 만나러 갑니다. 새벽마다 성당 계단을 올라가면서, 도대체 내가 뭐하는 짓일까 생각합니다. 스스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김없이 새벽이면 일어나서 그분을 뵈러 갑니다. 저는 이것이 '기적' 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분들께서 이미 보여 주시고 들려주시고 냄새 맡게 해주셨음에도 믿지 않았었습니다. 스스로의 자기 암시이며 자기 최면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성모님은 저처럼 완고한 자

그분들이 손을 내밀 때, 주저하지 말고 그 손을 잡으세요

의 마음을 아주 서서히 변하게 만드셨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에게, 하느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저 스스로 몸으로 느껴가며 바로 이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지금 메주고리예로의 순례를 계획하고 계시거나 마음에 품고 계시는 분들께 저는 감히 말합니다. 메주고리예에 가서 성모님의 발현을 직접 눈으로 보고 오는 자가 있고 또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기적'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기적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혀도 그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보아도 믿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있습니다. 다만 마음을 열고 영혼의 눈을 열어서 보이지 않는 그분들을 느끼려고 애쓰다면,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을 것이며 또 직접 눈으로도 보게 될 것입니다. 구하면 받을 것이고 찾으면 얻을 것이며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입니다.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우리를 쳐다보며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그분들이 손을 내밀 때, 손을 내민다고 생각이 들면 주저하지 말고 그 손을 잡으세요.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입니다. 하느님의 계획은 너무나 완벽하셔서, 그 사람에게 맞는 가장 적합한 모양과 형태로 기적을 행하십니다. 하느님의 은총을 받았으나 처음에는 그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눈에 보여 주시고 코로 향기를 맡게 하시고 또 몸으로 느끼게 하셨으나, 마음이 열려있지 않아서 메주고리예 순례 전에는 저는 몰랐습니다. 어렵듯이 느꼈으나 '이게 뭐지?' 하며 그저 어리둥절하기만 했습니다. 기적의 땅 메주고리예에서 저는 빙글빙글 도는 태양을 보았습니다. 성체가 하늘에 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의 땅에서조차 저는 마음이 열리지 않아 내가 보고 있는 것에 기쁘지도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메주고리예의 순례를 끝낸 후 부터 서서히 제 마음은 하느님께로 향하고 예수님께로 향하는 마음에 저절로 무릎이 꿇어집니다. 너무 감사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영적 삶의 목적은 하느님을 즐기는 것이라는 말이 얼마나 맞는 말인지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 계획하시는 하느님을 느끼고 그분과 놀아 드릴 수 있다면... 또 감사할 뿐입니다. 메주고리예는 신비로운 곳입니다. 성모님이 당신을 부르십니다. 부르시면 대답하세요. 아무것도 망설이거나 핑계대지 말고 그저 하라는 대로 하세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은 알 수 없어도 그냥 따라 하세요. 혹 아무것도 느끼지 않았어도 그 귀한 순례를 두고두고 마음에 품기만 하세요. 지금은 불완전하여도 완전한 것이 오면 불완전한 것이 사라지듯 시간이 지나면 당신을 위한 성모님의 사랑 가득한 계획을 알게 될 것이고, 그 사랑에 무릎 꿇고 올게 될 것이며, 그 사랑으로 당신은 변화될 것입니다.

저는 더 많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제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기도만 할 뿐이고 그 분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어렵고 힘에 벅찬 일들이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그저 우리가 기도 할 힘만 있으면, 그 기도의 끈만 놓지 않으면, 예수님의 평화와 성모님의 보호하심이 언제나 가득할 것입니다. 기도하려는 마음만 있으면 모든 것은 이미 다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주체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그분입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내가 필요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부르셔서 내 마음에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일어남을 깨달아야 합니다. 부르시는데 어떻게 대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부르시면 응답하세요. 당신을 위한 완벽한 계획이 이미 실행 되어지고 있으니깐요. **M**

(<http://blog.paran.com/medugorje>에서 발췌했습니다.)

Queen of Peace Missionaries

미국 P.O. Box 230, Albrightsville, PA 18210-0230
Tel : (610) 366-9612, Fax : (610) 366-9614
E-mail : qpmm.org@gmail.com

한국 서울 동작구 사당 1동 1031-29 한양빌딩 B1
Tel : 02-2281-3236 Fax : 02-2281-3246
E-mail : qpmmkr@gmail.com

캐나다 1624 50 Avenue S.W., Calgary AB T2T 2V9 Canada
Tel. 403-288-0469 E-mail: jyleecan@hotmail.com

발행처: 평화의 모후 선교회

발행/편집인: 남 그레고리

지도신부: 박창득 몬시뇰(뉴욕대교구)
: 신경남 신부 (카푸친 작은형제회)

자문위원단: 김한기 신부, 요조 조브코 신부, 김기수 신부,
이종하 신부, 백남국 신부
웨인 와이틀, 남기옥 (선교학박사)

한국지부장: 박연자

후원회장: 권수정

웹관리자: 제임스 윤

편집위원: 최성득, 이금희, 이규현, 송시원, 한데레사, 남미자
인쇄: 미주가톨릭출판사, 영인문화 인쇄, 동방인쇄

평화의 모후이신 성모님께 봉헌합니다.

왜 성모님께서서는 지난 27 년동안 계속해서
메주고리에에 발현하시는 것일까?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 주고자 하시나?
무엇을 부탁하시려는 것일까?

이 책에서 목격 증인 6명과 그들의 영적 지도자였던
슬라브코 신부는 인터뷰를 통해 진실하고 소박한
언어로 이 질문에 명백하게 대답해 준다.



메주고리에 치유의 음악과 성시간



- 은혜로운 성시간 DVD, 비디오, CD.
- 성체를 통한 치유의 음악 CD
- 메주고리에 관련 서적 보급
- 신경남 신부님의 체험담 '메주고리에의 부르심'

**판매 수익금은 성모님의 메시지를
실천하고 전하는 곳에 쓰여집니다.**

구입처

- 미국 : 평화의 모후 선교회 (610-366-9612)
- 한국 : 노마리노 (010-731-0-9678), 전국 성바로 딸 및 성바로 서점, 혜화동 가톨릭 서원 (02-745-8898)
- 캐나다 : 이 테레사 (403-288-0469),



미주 가톨릭 출판 서점

이웃에게 선물도 하시고 선교도 하세요.

**전품목
15% 할인**

- 엄마의 화살 기도(두숨 역음)
- 우리 아이 성공으로 이끄는 10분 인생수업 (제이미 밀러 지음)
- 우리가 예수를 찾는(사는) 이유는? (이재민 지음/1 & 2판)
- 우주를 알면 하나님이 보인다 (정진석 추기경 지음)
- 지역 하늘 아래서(이석현 지음)
- 인생은 편하게 살기에는 너무 짧다 (강길용신부 지음)
- 존주성범(대 & 소) (토마스 아 쾰피스 지음)
- 지혜로운 삶(짐 포리스트지음)
- 피의 증거(황서영 백서를 찾아서)(전서권 지음)
- 한송이 해바라기처럼(고마태오 신부 지음)
- 행복을 위한 선택(최기산 신부 지음)
- 향기로 말을 거는 꽃처럼(이해인 수녀 지음)
- 화 제대로 내기(버트 게찌 지음)
- 무엇하는 사람들이인가(박도식 신부 지음)
- 단팔병속에 남겨둔 행복(임경자 수상집)
- 내 안에 말씀이(이동호 신부 지음)
- 내 삶을 변화시키는 치유의 8단계(마태오 린 지음)
- 믿음 희망 사랑(아베리오네 신부 영적가르침 (알베리오네 신부 지음)
- 하나님의 사랑 피에트렐치나의 비오신부 (보스코 지음/소책자)
- 인격적 만남에의 초대(알버트 보드로우)
-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우려라(헨리 뉴엔)
- 관상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토마스키딩 지음)
- 침묵속의 만남(칼 라너 지음)
- 연옥 신회(막심 뤼앙 지음)
- 시에나 성녀 가타리나의 가르침(따올라 지음)
- 희망의 영성(데군도 갈릴레아신부 지음)
- 토마스 머턴의 씨앗(토마스 머턴 지음)
- 무혈의 순교(벤기명 신부 지음)
- 나 그리고 그대들의 뒷모습(이상각 지음)

- 세계성서 공회와 한국교회 공동 공용번역으로 새로 나온 성서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 1000여종의 서적 그리고 성서, 성물, CD, Tape 구비 (도서 목록 email 발송)
- 판매 수익금은 중국과 북한 선교를 위한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1000여종의 서적과 성서, 성물, CD, Tape에 대한 목록을 e-mail 해드립니다.

판매 수익금은 중국과 북한 선교를 위한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문의처 : ☎ 973-672-6335 팩스 973-672-0509 E-mail : meejoobook@yahoo.com



십시일반 후원회원님들의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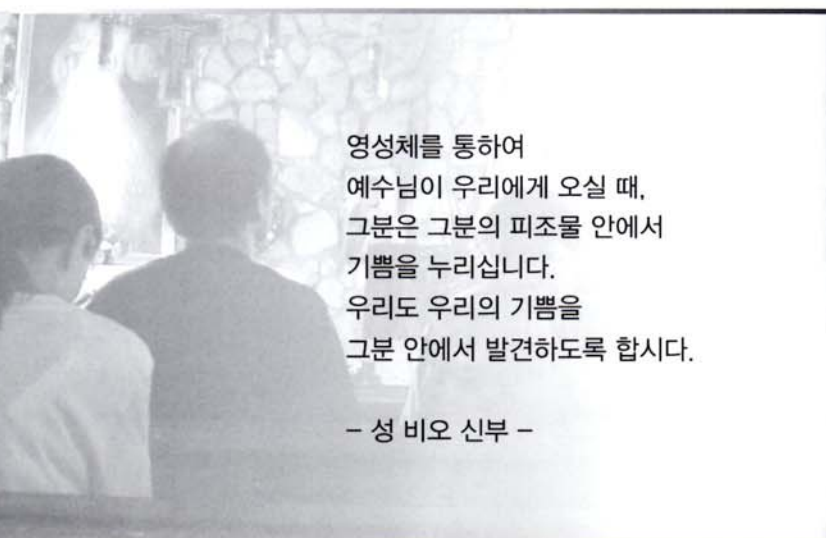
강옥주, 강은미, 강찬구, 권프란치스코, 구경숙, 김건일, 김경숙, 김금성, 김데레사, 김마테라, 김만춘, 김명숙, 김문건, 김복례, 김상범, 김영보, 김영서, 김옥희, 김유경, 김정희, 김성주, 김주희, 김호정, 김학실, 김혜숙, 김효안, 김춘자, 나연국, 난순, 남마리아, 남옥희, 로병건, 노베로니카, 문방자, 민정숙, 민진아, 민혜레나, 박노승, 박병철, 박선영, 박성수, 박승화, 박연희, 박영실, 박영희, 박요한, 박혜선, 박혜영, 방인복, 방찬곤, 백안셀모, 서정열, 성순희, 소진봉, 송모니카, 송정순, 신동배, 신순덕, 신진희, 심세실리아, 안영순, 안은순, 안드레아, 엄봉화, 엄토마스, 오순이, 오정환, 오지은, 옥범사비나, 유제영, 윤소화데레사, 윤수정, 윤영희, 윤형분, 이계숙, 이동우, 이동희, 이명자, 이마리아, 이복숙, 이복희, 이선화, 이수은, 이순세, 이순자, 이유정, 이윤영, 이호인, 이재문, 이진향, 이창호, 인숙필린스, 임주자, 장경숙, 장영아, 잔슨윤숙, 전분석, 전진숙, 전현숙, 정찬례, 정홍영, 조성희, 조안나, 진도미니카, 지니김, 지현남, 장창면, 최경숙, 최도경, 최루시아, 최성구, 최인청, 한미아, 황계자, 황중숙, 홍경복, 홍옥선, 익명

Cynthia Ziggman, Lisa Rigoni Yoon Lee, Tak Lee., Chong S. Watton, Kim, Mano, Kim Madera, C Shin, Paul & Mary K Lee, Park Suwon H, Young Choe, Henry Yerger, Yoon Jeung Lee, Paul Jung Koo Lee, Fairview Cleaners, Peter Shin, Soon Cha Meredith, Heung C. Park, Insuk Mullins, Soon Cha Meredith, Park Suurn H, Han Kwang J, Choung Kwang Sun,

- * 우편료와 물가인상으로 선교회의 운영 경비가 추가되어 생긴 부족금을 익명의 회원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 소식지가 반송되지 않도록 주소가 변경되신 분들은 꼭 선교회에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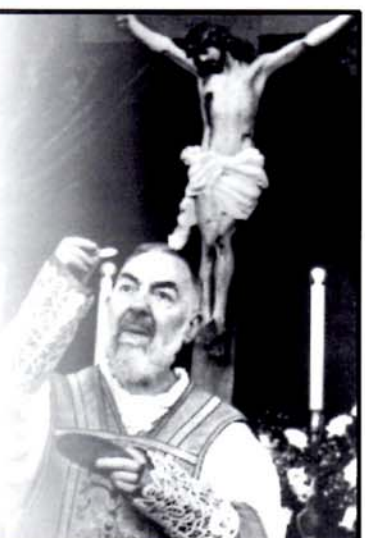
회원님들의 기도와 정성으로 격월로 발행되는 성모님의 소식지 '평화의 모후'는 매호 20,000부를 발행하여 4,500부의 개인 발송을 비롯하여 광과 사이판을 포함한 미주 전 지역, 한국, 캐나다, 메주고리에, 영국, 프랑스, 이태리, 독일, 호주, 스위스, 뉴질랜드, 페루, 멕시코, 브라질, 터키, 중국, 러시아 등에 성모님의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를 원하는 모든 곳에 무료로 전하고 있습니다.

십시일반 후원금	
이렇게 사용하였습니다.	
지난호 후원금	\$8,780.00
지출 :	
메주고리에 소식지	
후원회원봉투 인쇄	
통신비, 교통비,	
사무용품	\$12,221.51
잔액	- \$ 3,441.51



영성체를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그분은 그분의 피조물 안에서
 기쁨을 누리십니다.
 우리도 우리의 기쁨을
 그분 안에서 발견하도록 합시다.

- 성 비오 신부 -



Queen of Peace Missionaries

P.O. Box 230
Albrightsville, PA 18210-0230

Return Address

파리, 루르드 메주고리에, 드브로브닉

- ▶ 일 정 : 2009년 10월 31일부터 11월 12일까지 (11박 12일)
- ▶ 지도신부 : 김영철 라우렌시오 신부
- ▶ 순례안내 : 남 그레고리오
- ▶ 경 비 : \$3,150 Washington-Dulles (IAD) 공항 출발
- ▶ 문 의 처 : 평화의 모후 선교회 / Tel : 610-366-9612
e-mail : qpmm.org@gmail.com
www.qpmm.org

순례지

파리, 루르드 :

기적의 메달 성당, 한국외방 선교회, 예수 성심 성당, 노틀담 성당, 루르드 촛불행렬 참석, 기적수 침수, 벨라뎃다 성녀 생가 방문, 십자가의 길 묵상, 기념성당에서 한국어 미사봉헌.

메주고리에, 드브로브닉 :

발현산, 십자가산과 14처, 청 십자가, 슬라브코 신부님의 묘지참배, 부활 청동상, 기도과 노동으로 치유되는 전 마약 중독자들의 체나콜로 공동체 방문과 체현담, 오아시스 수도원, 티할리나 성모님, 매일 저녁 야고보 본당의 은혜로운 치유의 저녁 예절인 묵주기도와 미사 및 성 시간 참석, 아름다운 아드리아해 성곽도시와 성지방문, 1700년전에 순교한 실바노 성인의 시신이 모셔진 성 브레이슬리 성당에서 한국어 미사 봉헌, 아드리아 해안가의 루르드 성모동굴 방문.



PSRT STD
US POSTAGE PAID
ALBRIGHTSVILLE, PA
PERMIT NO. 4